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3352호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코스피 2028.99 (-1.69)
코스닥 694.21 (+0.79)
금리(국고채 3년) 1.8 (+0.02)
환율(원·달러) 1156.00 (+6.50) 〈27일〉

[산업] 현대차의 '고잉홈' 실향민 달랬다 06

카카오·KT 은행업 입성

23년 만에 2곳 추가 인가
고객 편의성에 높은 점수

I뱅크, 안정성 취약… 탈락

23년 만의 은행업 추가 인가로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전문은행 2곳이 드디어 발표됐다.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주도하는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는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과 법률, 핀테크, 정보기술(IT)보안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심사했다.

앞서 지난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컨소시엄 등 총 세 곳이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사업 계획성이 타당해 예비인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기반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 초기 고객기반 구축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뱅크는 ▲참여주주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고객접점 채널 마련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I뱅크의 경우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인가 관문을 넘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 금융당국의 본인가 절차를 거쳐 영업개시 시기가 결정된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현황

* 4%까지만 의결권 행사 가능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자본금	3,000억원	2,500억원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 국민은행(10%)	우리은행(10%) /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 다날(10%*) / KT(8%*)
핵심 서비스	·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 카카오톡 기반 간편 송금 · 카드·VAN·PG 없는 간편 결제 · 카카오톡 기반 금융 비서 · 카카오 유니버셜 포인트	· 중금리대출(빅데이터 기반) · 토탈 간편지급결제(Express Pay) · 휴대폰·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 · Robo-advisor 기반 자산관리 · Real-time 스마트해외송금

자료/금융위 연합뉴스

파리로 떠나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정상회의 참석 차 프랑스·체코 방문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를 대체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신(新) 기후체제 체제를 합의하기 위한 무대다. 파리 총회는 이런 공감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진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 출국장에서 환송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獨 '실리콘 알레' 유럽 창업허브 떠올라

청년, 일자리가 미래다

⑤ 국내외 일자리 성공사례

[글싣는 순서]

1부 N포 세대의 우울한 자화상
2부 청년에 희망을! 국가에 미래를!
3부 청년희망재단의 기부천사들
4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애쓰는 기업들
5부 이젠 노동개혁이다

개인 열정만으로는 한계
'지역·정부·자본' 균형 관건

中, 국가적 역량 총동원에
마윈 등 1세대도 적극 나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역사회, 중앙정부, 자본 등 국가의 자원이 총동원돼야 하는 일이다. 게다가 단지 물량공세로만 해결되지도 않는다.

청년 창업의 메카로 자리잡은 미국 실리콘밸리 경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어울려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다. 특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존재의 역할이 중요했다. 아이디어만을 가진 청년은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변신했다. 사무실과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이고 각종 전문가들의 멘토까지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세계 각국에서 제2의 실리콘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이 큰 난제인 유럽에서 실리콘밸리 모델은 낙후된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핵심이 되고 있다. 베를린은 동독시절 낙후된 경제기반 탓에 통독 직후 실업률이 40%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실리콘알레를 중심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IT창업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성장이 정체돼 가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청년 창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베이징의 중관춘은 물론이고, 상하이·선전·우한 등 각지에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알리바바, 샤오미 등의 성공신화가 강력한 에너지가 되고 있다. 마윈과 레이쥔 등 1세대들도 청년 창업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삼성, 현대차, LG 등 10개 대기업이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SK가 첫 시동을 걸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우울한 무역의 날… '무역 1조 달러' 5년 만에 물거품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침체·국제 유가 반토막
올 10월까지 8076억 달러 그쳐

올해 수출 부진과 수입 감소로 우리나라의 5년 연속 '무역 1조 달성'이라는 꿈은 멀어지게 됐다. 〈관련기사 8면〉

세계 경기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 무역이 10% 이상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수출입 전망 및 201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무역 규모는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2014년보다 7.1% 떨어진 5320억 달러, 수입은 16.3% 하락한 4400억 달러로 총 교역은 9720억 달러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교역 1조 달러 행진을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무역규모가 8076억 달러(수출 4402억 달러, 수입 3674억 달러)에 그쳤다.

올해 무역 규모 급락에는 국제유가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50%가량 하락하면서 10월까지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원유 관련 제품의 무역 감소액이 863억 달러(수출 252억 달러, 수입 611억 달러)나 됐다. 작년 대비 전체 무역규모 감소분의 79.0%를 차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50년 넘게 승승장구한 무역이 올해엔 골칫덩어리가 됐다. 예년엔 수출이 평균 1~2% 정도의 성장 기여를 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을 2%대로 떨어뜨린 것이다.

특히나 다음달 5일 '제52회 무역의 날'이 다가오면서 무역인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수출이 줄면서 기념일마저 우울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올해 심각한 부진을 겪는 수출 분야와 관련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구조가 자유화, 유연화되면서 불필요한 구조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 칼을 휘두르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 있고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각 역할이 잘 이뤄지게 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한줄 News

정치·사회·국제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에 대해 "활로를 여는데 충분하지 않다"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대안으로 문 대표와 자신이 참여하는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역제안했다.

▲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지라도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전날 전농에 전달했다.

▲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이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조 엔(약 47조2260억 원) 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영국계 팝스타 **아델**(27)이 3년만에 내놓은 새 음반이 전 세계에서 사회적 현상에 가까운 신드롬을 낳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아델을 따라 부르는 커버송과 패러디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산업

▲ 우리나라의 수출이 계속 부진하면서 4년간 이어져 왔던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내림세 진정 등에 힘입어 1조달러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

▲ 노트북·서버 등 PC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40%의 점유율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10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40만9200명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가장 많은 것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한국카카오은행'과 KT가 주도하는 '케이(K)뱅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인터파크가 이끄는 '아이(I)뱅크'는 사업성 취약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줬다가 부실화된 대출은 올 상반기 21조6000억원으로 6년 만에 57%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평균 자기자본(BIS)비율은 14.08%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충당금을 늘릴수록 BIS비율은 떨어져 은행권이 고민에 휩싸였다.

▲ 분양 성수기를 맞아 우수한 일조와 조망으로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계약이 실시된 85층 **초고층 아파트** '해운대 엘시티 더샵'을 비롯한 '해운대 센텀경동리인'과 '협성휴포레 부산진역 오션뷰' 등 초고층 아파트가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통·라이프

▲ **유럽 외식브랜드**의 공세가 거세다.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라 파티세라 데 헤브'와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브랜드 아모리노가 최근 국내에 진출했다.

▲ 하루 유동인구 45만명을 잡기 위한 롯데와 AK의 숨막히는 **수원대전**의 1차전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1주년을 맞이하며 차별화된 입점 브랜드와 콘텐츠를 앞세워 수원 1위, 경기남부 대표 쇼핑몰로 또한번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 영화 '**내부자들**'이 개봉 10일 만에 누적관객 316만을 돌파했다. '내부자들'의 300만 돌파는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최단 기록이다.

무너진 삼바경제, 브라질 펀드 30% 허공에…

펀드 올 수익률 -29.21%
국채 투자 손실도 눈덩이
경제 회복 이끌 요인 없어
단기간 안에 안정 안될 것

'삼바 경제'가 흔들리면서 브라질 펀드와 국채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주름살이 늘고있다. 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개월 이상 모든 구간에서 손실을 내고 있고, 국내에서 6조원 가량 팔린 브라질 국채의 투자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브라질의 경제 회복세를 이끌 만한 반등 요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웃도는 브라질 국가부채가 머지않아 경계수준인 70%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2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브라질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29.21%를 기록중이다. 해외펀드 중 가장 낮다.

3~5년 장기 수익률도 각각 -47.28%, -61.08%에 달한다.

◆브라질 펀드 올 수익률 -29%

브라질 증시에서 보베스파지수가 올해 고점이던 5월 6일(58574.79)보다 21% 가량 하락한 탓이다.

여기에 브라질 헤알화 가치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수익률은 더 악화됐다.

〈주요해외펀드 수익률〉 단위:%

지역/국가	1개월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글로벌	1.02	-0.58	-1.98	3.40	13.56	-0.18
글로벌이머징	0.27	-8.11	-15.85	-18.30	-15.59	-27.80
EMEA	-0.11	4.03	-1.72	0.29	20.23	28.02
브릭스	-0.65	-7.22	-11.98	-10.03	-4.98	-20.46
신흥아시아	-0.68	-6.43	-10.23	0.58	6.40	17.28
친디아	-2.00	1.21	-1.65	19.38	28.45	8.49
중국(홍콩H)	-0.93	-2.68	-0.29	1.11	14.25	-0.56
중국본토	7.41	9.07	35.80	49.35	62.34	22.70
대만						
인도	-4.50	0.38	-4.31	46.57	37.28	2.86
아시아퍼시픽	2.12	5.99	4.48	14.97	31.99	20.28
아시아퍼시픽(ex_J)	0.75	1.42	-1.75	9.18	17.36	9.96
일본	4.16	14.33	13.84	25.76	91.31	78.28
유럽	2.02	11.42	10.04	17.60	43.10	51.86
신흥유럽	-0.50	-1.80	-17.32	-29.56	-21.43	-33.91
러시아	2.05	14.62	-11.60	-29.82	-22.68	-34.57
북미	3.31	4.22	4.43	24.80	62.82	85.30
중남미	1.55	-23.33	-32.26	-35.21	-39.10	-47.87
브라질	7.12	-29.21	-37.49	-42.95	-47.28	-61.08
중동아프리카	-5.38	-13.54	-20.63	-4.34	7.24	0.25

국내에서 판매된 브라질 국채와 펀드의 대부분은 헤알화 변동에 대한 환헤지를 하지 않아 헤알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헤알화 가치 하락세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진행되자, 달러 스와프 거래 만기 연장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덕분에 헤알화 가치는 한달 새 10%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헤알화가 정상화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브라질 국채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9월 말 현재 국내 증권사의 브라질 국채 판매 잔액은 5조8000억원 수준이다. 브라질 경제가 고속성장하던 2010~2012년 연 10%대의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 하지만 2011년 최고 690원대로 치솟았던 원-헤알 환율이 최근 300원 선을 넘나들면서 투자자들은 원금이 반토막 이상 난 상태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국가 부도사태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 매도보다는 길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브라질 경제회복 '안갯속'

문제는 브라질 경제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브라질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진단한다.

S&P는 "브라질 경제지표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단기간 안에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P는 지난 9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피치의 라틴아메리카 담당 수석 연구원인 셸리 셰티는 "브라질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래에셋증권 정의민 연구원은 "11월 들어 브라질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펀더멘털에 그다지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재정·정치 리스크(고유 리스크) 완화 여부에 따라 불리한 대외 여건의 변화가 브라질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단독처리냐, 합의냐… '한·중FTA' 오늘 윤곽

與 "단독처리 불사"
野 "쟁점 현안 연계"

'여당 단독처리냐, 여야 합의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30일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한·중FTA는 지난해 11월 10일 공식 체결된 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1년여를 끌어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 한·중FTA 비준안 통과를 목표로 26일부터 이날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왔다. 이에 여야는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30일 오전에도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에 이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현재 합의안 초안을 비교검토하는 단계까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쟁점은 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중 무역이득 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수준 등을 결정하는 일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법안 조율 등을 위해 여야 의원들, 송언석 차관과 함께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한·중FTA 처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다른 쟁점과 맞물려 여야 셈법이 복잡하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부담 주체와 전·월세 상한제 등 다른 사안을 연계하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한·중FTA 비준안은 무조건 이날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준안 통과 이후 연내 발효까지 행정절차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의결절차 수순은 일사천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비준안이 법률안이 아닌 점도 신속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법률안은 주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60%가 찬성해야 하지만 비준동의안은 상임위만 통과하면 본회로 부의된다. 특히 외통위 위원 22명 중 새누리당은 14명, 새정치연합은 8명이다. 야당이 불참해도 비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보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셈이다.

다만 여당이 과반수를 이용해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인 보완책은커녕 기업들의 자발적 선의에만 기대는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처리뿐만 아니라 다가올 총선 정국에도 불리하다.

야당의 경우 다른 쟁점 예산안과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어 장기적으로 치명타는 마찬가지다. 야당은 FTA 비준안 처리를 고리로 영유아 무상교육(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과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FTA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정기국회 쟁점도 함께 처리하려는 연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전향적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비준 처리를 발목 잡을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고, 비준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다른 쟁점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갈림길에서 지도부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연미란 기자 actor@

'워크아웃법' 2년6개월 연장… 관치금융은 숙제

여야 '기촉법' 연장 개정안 합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가까스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금융당국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 정상화'와 '협력업체 줄도산 방지'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나오지만 경남기업 사태처럼 당국이 개입해 채권 은행을 압박하는 '관치' 행정으로 변질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근거법으로 올해 말 사실상 폐기되는 기촉법을 2018년 6월까지 2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애초 새누리당은 기촉법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화를 추진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관리제도를 보완한 통합도산법(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맞섰지만 일단 여야는 2년 연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양측이 양보해 접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기촉법은 IMF 외환위기 당시 대거 발생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와 재입법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시행돼 왔다.

/연미란 기자

‘모바일 기술+은행 노하우’ 승부 갈랐다

인터넷은행 선정 기준은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종 티켓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돌아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무점포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유리한 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 강점을 앞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로 선정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에선 23년 만의 새 은행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각종 비용절감으로 수수료·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개별적으로 금융당국의 본인가 절차를 거쳐 영업개시 시기가 결정된다. 본인가 이후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이 문을 열게 된다.

한국카카오 은행 주요 사업 내용

기존

인력을 활용한 push 영업 또는 금리 추가 혜택 기반의 고비용 영업/마케팅

VS

카카오뱅크의 차별적 고객 유치 방안

노출형 마케팅

카톡 ‘더보기’ 부문 카카오뱅크 아이콘 광고

과거 경험 상 200만 다운로드 발생 가능

혜택 제공형 마케팅

카카오뱅크 가입 시 카톡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

과거 카카오택시 ‘첫 탐승 시 이모티콘 증정’ 이벤트로 70만명 이상 고객 유치 성공

케이뱅크 은행 주요 사업 내용

- 다른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환경 내 K뱅크 금융기능들이 Open API 방식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고객 대상 논스톱 서비스 제공
- 자체 개발 역량이 없는 각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공급업체는 K뱅크 Open API를 활용하여 자사 고객 대상 서비스 개선
- 고객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금융 니즈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K뱅크로 연계

카카오뱅크

카카오·KB·한국투자금융 참여
빅데이터·은행 신용등급 조합
금융 소외층에 중금리 대출 준비

◆ **두 달간 경쟁…카카오뱅크·K뱅크 웃다**

앞서 카카오뱅크·K뱅크·I뱅크 컨소시엄 등 세 곳은 지난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기 유리한 점을 내세워 열띤 홍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끌며, KB국민은행이 참여했다. 이들은 4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 플랫폼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산관리 경험, KB국민은행의 은행·카드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의 방대한 데이터, 은행권의 신용등급을 조합해 고객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 그동안 은행 혜택을 충분이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 금융 소외계층, 스타트업 등에 적합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K뱅크 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이 대주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KT의 강력한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활용,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고객 중 부실 가능성이 없는 고객을 발굴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순 출금, 이체를 넘어 계좌개설, 비대면 인증, 소액대출 등이 가능한 ‘무인 은행점포’인 스마트ATM을 GS리테일, 우리은행 등 협력사를 통해 보급하고 ‘우리 동네 작은 은행’으로 진화시킬 방침이다.

한편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SK텔레콤, IBK기업은행 등이 참여한 I뱅크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도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내세웠지만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제2금융권 지각변동 ‘불가피’**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유통, 통신 연계의 결정체로 ‘핀테크의 꽃’이라 불린다. 전문가들은 핀테크를 활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10%대의 경쟁력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재은 연구원이 분석한 ‘매킨지의 글로벌뱅킹 연차보고서(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에 따르면 2025년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업 매출 40%, 수익 60%를 잠식할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앞세워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은행 수익을 가져갈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비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며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에 뛰어든 상황으로 은행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간 정도의 금리 수준에 대한 수요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유망한 잠재고객이 될 것”이라며 “전체 국민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중신용 계층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면 구매력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부도를 줄이는 등 경제 안정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국내 은행 간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며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 서비스와 고객군이 폭넓어져 금융소비자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이끄는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K뱅크

KT·우리은행·현대증권 참여
견실한 고금리 대출 고객 발굴
10%대 중금리 서비스하기로

카카오뱅크

“시중은행과 차별화”

K뱅크

“금융시장 혁신 촉매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9일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이날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인가 결과에 대해 “시중은행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금융혁신이 모바일을 통해 고객을 찾아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뱅크는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내년 본 인가를 위한 임원진 등 인력 구성 및 영업시설, 전산체계 등 물적설비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개시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이용우 전무는 “카카오뱅크 공동 발기인들이 함께 만든 비전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하게 돼 영광”이라며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 시중은행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금융혁신이 모바일을 통해 고객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 케이뱅크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의 혁신성과 참여 주주사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결과이며, 이를 바탕으로 ICT 융합으로 국내 금융시장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우리동네 네오뱅크’와 ‘일자리를 만드는 은행’을 내세우고 있다. 검증된 빅데이터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 초기 성공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K뱅크 컨소시엄의 김인회 TF장 전무는 “케이뱅크는 차질 없는 사업 준비로 중소상공인의 창업지원,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확대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1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문경 기자 hm0108@

‘우버’, 공유경제 넘어… 파괴자·선구자 논란 촉발

2015
지구촌을 달군 기업 10

❾ 우버

#메트로신문은 다가오는 2016년을 가늠하기 위해 올해 지구촌을 달궜던 글로벌기업 10곳을 골라 되돌아본다.

우버에게 미국 다음의 시장인 인도의 우버 운전자들이 지난 14일 당초 약속보다 낮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회사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기업 CEO·COO의 근심 등
불법·소송 등 세계적 골칫거리로
우버 러시부터 이츠까지 승승장구
“공유경제 기업, 어려움 있을 것”

최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지는 구글, 야후, JP모건 등 내노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대다수가 ‘우버 신드롬’이라고 답했다. 우버는 일반 자동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다. 기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는 다른 공유경제 질서를 표방한다. 우버의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은 글로벌기업의 경영진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IBM의 설문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IBM이 70개국의 글로벌 경영자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한 경쟁자의 출현’을 꼽았다. 바로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을 겨냥한 답변이다.

우버는 올해 한해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전 세계 기업들은 우버가 과연 미래경제의 선구자인지, 아니면 분쟁유발자에 불과한지 고민하고 있다.

◆세계 택시업계 반대시위 끊이지 않아

우버는 60여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소송 중이다. 우버 운전자는 택시 면허 없이도 공유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긴다. 세계 택시업계는 우버 운행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다. 포르투갈, 프랑스, 인도,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우버 고위 임원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우버에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초창기부터 반발이 있어 왔다.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버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논란은 본격화됐다.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브라질에서는 최근 수천명의 택시운전기사들이 벌인 시위로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브라질의 시위는 우버가 일으키는 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브라질 제2의 대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장은 우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우버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브라질 법원은 시장의 금지명령을 파기하고 우버의 영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다. 브라질 헌법에 적시된 자유기업 정신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소송전이 바로 우버가 싸우는 방식이다.

브라질의 택시기사들은 우버의 브라질 진입이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은 대도시가 중심지다. 이들은 자신들이 패배하면 자신들의 터전인 이 도시들도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중 기업 간 반우버 연대 결성하기도

기업들은 브라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버에 맞서기도 한다. 스스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으로 우버와 정면승부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롱비치시는 최근 택시차량의 기능과 색상을 업그레이드하고 택시요금제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택시 개혁방안을 내놨다. 롱비치 택시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요금을 인하하고, ‘무료탑승 쿠폰’을 나눠 준다. 택시 브랜드를 통일하고 택시 색상까지 새롭게 단장한다. 우버의 편리한 앱에는 역시 앱으로 맞선다.

더욱 파격적인 대응방식도 나왔다. 국경을 넘는 기업 간 연대다.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신생기업 리프트와 중국의 디디는 서로의 앱 서비스를 상대방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는 미국을 방문한 디디의 고객이 디디의 앱으로 리프트의 운전사를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회사는 인도의 올라나 싱가포르의 그랩택시와의 연대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는 우버에 대항하는 첫 번째 기업 간 공동노력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보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반발에도 승승장구하는 우버

우버는 전 세계에서 반발에 부딪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1년 3000억 원가량이었던 기업가치는 현재 6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버는 각국의 현행법과 부딪치더라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 이전의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배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는 식이다. 바로 ‘우버 러시’ 서비스다.

우버 러시는 차와 자전거를 이용한 당일배송 서비스다. 도시에 따라 운송수단은 달라진다. 뉴욕에서는 배달원이 자전거나 도보로 배달하고 시카고에서는 차량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배송 요금은 5~7달러다. 우버 러시 고객은 상점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서 우버 러시를 선택한 뒤 당일 배송에 체크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퀵 서비스와 비슷하다.

우버 러시는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출발해 최근 프랑스 등에서도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 음식 배달 전용 앱 ‘우버 이츠’에서 제휴 레스토랑 메뉴를 골라 배달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우버 이츠는 이미 북미 지역과 스페인 등 세계 10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승승장구하는 우버와 이에 맞서는 기존 업체들 간 승부의 결과는 어떨까.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40년 정도 일어날 현상은 흥미롭지만 공유경제 기업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직원들 SNS 몰래 감시한 ‘월마트’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손빌려
동태 파악·시위 참가지 가려내

무노조 경영을 철칙으로 삼아온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과거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기술을 빌려 직원들을 감시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최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월마트는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직원들의 파업 조짐이 감지되자 록히드마틴과 협업해 직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관찰했다.

월마트 수뇌부는 2012년 가을 미국 식품상업노동조합(UFCW) 산하에 노조격인 아워 월마트(OUR Walmart) 조직이 생겨나는 것을 포착했다. 아워 월마트는 시급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고, 연중 최대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기회로 삼았다.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조업 중단, 시위, 파업 등을 벌여 회사에 압력을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미국 전역 4000여 매장에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월마트의 경영진은 록히드마틴과 접촉했다. F-35등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LM 위즈덤’이라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SNS 계정을 관찰하는 일을 한다. 월마트와 록히드 마틴은 아워 월마트 관계자들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관찰하며 동태를 파악하고 시위 참가자를 가려냈다.

미국에서 회사가 직원의 공개 SNS 계정을 관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노동 관련 법률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관찰 대상이 됐던 월마트 직원들은 감시 자체보다 록히드마틴이라는 초대형 방산업체가 개입된 것을 씁쓸해 했다. 한 직원은 “우리는 이슬람국가(IS)가 아니다”고 분개했다.

월마트 측은 록히드마틴과 함께 아워 월마트 관련 직원들을 감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아워 월마트에서 활동하는 한 직원은 “월마트가 록히드 마틴을 고용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하다”며 “내가 월마트 주주였더라면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벼랑끝 몰린 美 이통사… 줄줄이 요금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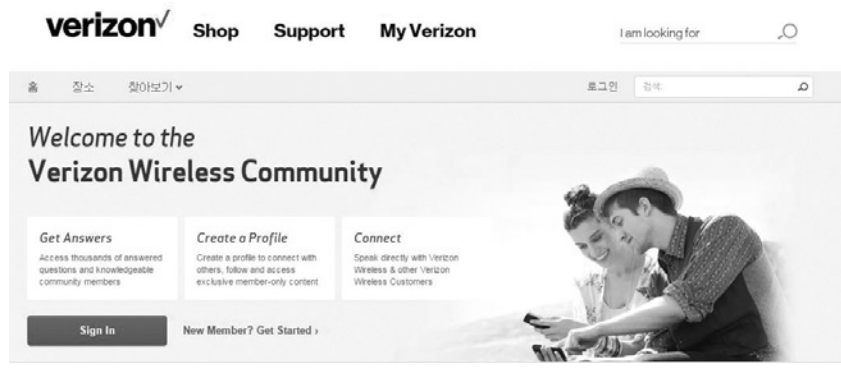
시장 포화상태… 수익 수난
폐지됐던 가입비까지 부활

선진국의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데이터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때 폐지했던 가입비까지 부활시킨 이통사도 있다.

미국 1위 업체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이달 15일(현지시간)부터 신규 회선에 무조건 20 달러(2만31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이는 고객이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개통하든, 이 회사에서 할부로 구입하든 모두 적용된다.

버라이즌은 또 이미 폐지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몇 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월 30 달러(3만4600원)에서 월 50 달러(5만7700원)로 66.7% 인상했다. 이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요금은 제외한 것이다.

제2위 업체인 AT&T는 올해 8월 1년 혹은 2년 약정시 가입비와 단말기 개통료를 40 달러(4만6200원)에서 45 달러(5만2000 원)로 인상했다. AT&T와 버라이즌은 기존 고객이 약정을 걸고 단말기 할인을 받을 때도 ‘단말기 업그레이드료’라는 명목으로 신규 가입비와 똑같은 액수의 단말기 개통료를 받고 있다. 사실상 약정을 갱신할 때마다 가입비를 받는 셈이다. 버라이즌은 여전히 40 달러(4만6200원)를 받는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홈페이지 .

AT&T는 또 올해 8월부터 고객이 본인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비 15 달러(1만7300원)를 받고 있다.

제3위 업체인 T-모바일 USA는 원래 월 80 달러(9만2400원)이던 무제한 음성·문자·LTE 데이터 상품의 요금을 이달 15일 월 95 달러(11만원)로 18.8% 올렸다. 무제한 LTE 요금제의 테더링 한도를 7 기가바이트(GB)에서 14 GB로 늘리기는 했으나, 그 외에는 변화가 없이 요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제4위 업체인 스프린트는 지난달 16일 무제한 음성·문자·데이터 요금을 월 60 달러(6만9300원)에서 70 달러(8만800원)로 인상했다. 다만 기존 고객들에게는 요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평생 아이폰’ 프로모션을 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월 50 달러(5만7700원)에 제공하기도 했으나 이를 폐지했다.

이처럼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잇따라 올리는 것은 상호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입자 늘리기가 쉽지 않아진 탓에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요금·수수료 인상으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단말기를 바꾸는 기존 고객을 붙잡아 두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써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통사 최고경영자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미국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내놨던 무제한 요금제를 잇따라 폐지하거나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송병형 기자

中 마윈 "100만 창업자 육성"… 창업인해전술 선보인다

중국의 대표 IT거리인 베이징 중관춘. 21세기 현대화 대도시로 발돋움 하기위한 전략의 일부분으로 지어졌다. /위키디피아

CJ푸드빌 매장에서 여성직원들이 남성 직원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CJ그룹

페이팔 마피아·황커플러스 등 '청년 창업' 도우미

사무실·컨설팅 서비스부터 각 분야의 세계적 멘토 지원

'청년 일자리가 미래다'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이를 실증한다. 첨단산업단지의 대명사가 된 실리콘밸리의 주역은 바로 '청년 창업'이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제2의 실리콘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중관춘 산업클러스터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청년들은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성공을 도와준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500스타트업'의 홈페이지 화면. '우리는 강하다'라는 말에서 실리콘밸리의 힘이 느껴진다.

◆실리콘밸리 '페이팔 마피아'의 창업지원

실리콘밸리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절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케팅, 법률자문 등의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각종 협회나 투자자들도 있다. 특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존재는 실리콘밸리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이들은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전략 등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널리 알려진 '페이팔 마피아'의 경우가 그렇다. 전자결제시스템회사인 페이팔의 성공을 이끈 멤버들은 이후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창업자를 지원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있다.

페이팔의 마케팅 디렉터 출신인 데이브 맥클루어(Dave Mcclure)는 특히 창업 지원에 열성적이다. 그가 세운 '500스타트업'은 '플러그앤플레이'와 더불어 미국의 유명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이다. 500스타트업 데모데이(언론과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수백개의 벤처캐피탈이 모일 정도다.

500스타트업은 공개 모집이나 관계자의 추천을 통해 지원할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선택받은 스타트업들은 3개월간 집중 멘토링을 받은 뒤 데모데이를 통해 전세계의 벤처캐피탈을 상대로 투자유치에 나선다. 달랑 아이디어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는 청년들이 3개월간의 멘토링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다. 과연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500스타트업의 당초 목표는 전 세계 5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목표를 200% 가까이 초과달성한 상태다.

◆중국 알리바바 마윈의 '촹커플러스' 100만 창업자 목표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창업열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 베이징의 중관춘과 상하이의 창조단지를 비롯해 각 도시들이 창업의 허브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중요하다. 아직은 실리콘밸리의 500스타트업이나 플러그앤플레이의 방식을 배우는 단계다.

하지만 창업 신화를 먼저 이룬 큰손들이 움직인 이상 미국을 따라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지난 3월 100만 창업자 양성을 목표로 '촹커플러스'라는 온라인 창업지원 플랫폼 계획을 제시했다.

마윈이 IT 관련 스타트업의 제품 및 부품 개발, 공장부지 제공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자금의 규모는 100억 위안(약 1조7800억 원)에 달한다. 베이징의 중관춘은 물론이고, 상하이·선전·우한 등 각지의 청년 수백명이 촹쿼플러스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마윈 뿐만이 아니다.

텐센트의 마화텅은 연말까지 중국 20대 도시에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레노버도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다.

레노버는 창업 지원을 위해 중국과학원과 '레전드스타'를 설립했고, 30억 달러(약 3조5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200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또 샤오미의 레이쥔, 소호닷컴의 장차오양 등 중국의 IT거물 다수가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685만 개의 새로운 기업이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송병형 기자 bhsong@

취약층부터 장애인까지… 대기업, 일자리 창출 속도

여러 계층 위한 프로그램 운영 '디딤돌'로 첫 출발 끊은 SK

국내 주요 그룹들이 청년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달 초부터 'SK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협력사에 취업할 청년 모집에 나섰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10개 대기업이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SK가 첫 시동을 걸었다.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대상자에 선발되면 대기업에서 3개월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참여기업(협력사와 중소·벤처기업)에서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하게 된다.

SK그룹은 직무교육 기간에는 월 50만원의 훈련수당을, 인턴 기간에는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6개월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과 함께 직무교육 기간에 따라 취업지원금 100만~3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인턴들의 역량을 평가한 뒤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다.

SK그룹의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에너지·화학, 전기전자, 건설 등 14개 산업 분야에서 모두 300여 회사가 참여한다.

이들이 내놓은 인턴 직무도 ICT·인터넷, 생산과 연구개발, 마케팅, 경영지원 등 68가지나 된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SK그룹 측은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ICT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2013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3기에 걸쳐 총 34개 팀(1기 10팀, 2기 13팀, 3기 11팀)의 '창업의 꿈'을 현실로 성공시켰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을지로 본사에서 '브라보 리스타트' 3기에 참여한 11개 업체들의 1년간의 인큐베이션 성과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SK텔레콤

CJ그룹은 지난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기업-특성화전문대학 인재매칭 사업'의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업-특성화전문대학 인재매칭 사업은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과 특정 학과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CJ그룹은 당시 10개 전문대학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 과정을 통해 CJ그룹은 올 한해에만 12개 계열사에서 30개 직무에 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고용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취업연계 교육 프로그램 '프로보노 취업 교육'도 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떠나야 했던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마련한 재취업 프로그램 'CJ리턴십'도 지난 2013년 6월 대기업 최초로 시행중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지원성 업무인데 비해 CJ리턴십은 디자인, 인사, 마케팅 등 전문직군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해 리턴십 근무자들이 이전의 경력을 살려 업무를 통해 직무 전문성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CJ리턴십을 통해 채용된 경력단절 여성들은 현재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대한통운, CJ E&M, CJ CGV 등 CJ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근무 중이다.

CJ 측은 "시간적 제약이 있는 리턴십 근무자들이 기존 구성원들과 무리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직무군을 개발하고 선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굿윌스토어 효성 1호점'을 열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효성굿윌스토어는 개인, 기업, 사회단체와 효성 임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현재 비장애인 점장과 물류매니저를 포함해 장애인 9명, 새터민 2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3년 10월 문을 연 이후 2015년 3월 말 기준 총 매출액 3억원을 돌파했다.

효성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돕는 '컴브릿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컴브릿지 사업은 폐기처리되는 컴퓨터와 모니터, 프린터 등의 전산기기를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분해하는 작업에 장애인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사업이다. 이를 통해 4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에덴복지재단에 전산자재 약 1000대를 기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정부, 차별화 전략으로 해외취업 지원 나선다

2017년부터 1만명까지 국가별·직종별 맞춤전략

정부가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 청년취업자 수를 2017년부터 1만여 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확정하고, 청년들의 취업 진출이 유망한 15개국을 선정해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틈새 유망직종인 치과기공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저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청해진대학(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해진대학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IT 취업교육 과정 수강 인원을 올해 150명에서 2017년에는 300명으로 늘린다.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통상 1~2년의 경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리크루트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 창구도 강화한다. 올해 개통한 해외취업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해외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K-Move센터'는 올해 11곳에서 내년에 15곳으로 늘린다. /송병형 기자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3D영상이 되살린 고향… 실향민의 그리움 덜었다

현대차 기술력 모은 '고잉홈'
1주만에 조회수 1000만 돌파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0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고잉홈(Going Home)' 캠페인 영상이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잉홈' 캠페인은 고령의 실향민을 주인공으로 선정, 3D 디지털 영상으로 실향민의 고향을 복원해 가상 현실 속에서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해준 프로젝트다.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돼 공개된 이 캠페인 영상은 2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국문 영상 542만건, 영문 영상 537만건 등 총 1079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첨단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만난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디지털을 통한 고향 방문을 가능하게 한 프로젝트로 실향민이라면 누구나 품고 살아왔을 불가능한 꿈을 가상 현실로 이루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잉홈' 캠페인에는 ▲ 현대·기아차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시뮬레이션 기술 ▲현대엠엔소프트의 내비게이션 개발 기술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지도 서비스인 '브이월드'를 참고한 3D 복원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시뮬레이션 기술은 인간 공학에 기반을 둔 차세대 기술로,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규 차량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자동차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동반자로 인간을 배려하는 기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고잉홈' 캠페인 주인공이 아들과 함께 3D 영상으로 구현된 가상의 고향을 보고 있는 모습. /현대차

현대차 '車전장부품 개발' 올인… '기술 현대' 재건 노린다

엔지니어 출신, 계열사 대표 배치
글로벌 유통망 키울 인사도 영입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용 전장부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지니어 출신을 전장부품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로 전진 배치해 '기술의 현대'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7일 전장부품 관련 계열사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살펴보면, 우선 현대엔지비 대표이사 박정국 부사장을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박정국 신임 사장은 현대차 미국기술연구소장, 중앙연구소장, 성능개발센터장 등을 거친 연구개발(R&D) 전문가로,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의 산학협력과 R&D 육성 계열사인 현대엔지비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현대엔지비 대표이사직에는 현대차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오창익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며 보직 발령을 받았다. 오창익 전무는 현대차 연구개발기획팀을 비롯해 R&D품질강화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차 정보기술본부장 장영욱 전무는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됐다. 장영욱 부사장은 현대차 정보기획실장, 정보화추진사업부장, 정보기술본부장 등을 역임한 IT전문가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사는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장부품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룹 내 전산시스템, IT 정보 관리 능력을 비롯해 산학협력과 R&D 인재 육성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 연말 진행될 승진인사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가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위해 제네시스 'EQ900'를 공개한데 이어 추가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위험을 최소화 시켜주는 지능형 안전,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직관적 편의 기술, 단절이 없는 통신의 커넥티비티(연결성) 등 '사람을 향한 혁신기술'과 ▲ 후륜 구동 등의 고급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구현한 '편안하고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전장부문과 IT부문에 대한 승진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유통망 구축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 해외 인사 영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미 현대디자인센터 안에 신설한 별도의 조직인 '프레스티지 디자인실'을 만들었다. 또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틀리 전 수석 디자이너인 루크 동커볼케를 지난 4일 영입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박정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사장

- 생년 : 1957년생
- 학력 : 서울대 기계공학 학사/석사
- 주요경력
  - 현대·기아자동차 미국기술연구소장 (전무/상무)
  - 현대·기아자동차 중앙연구소장 (전무)
  - 현대·기아자동차 성능개발센터장 (전무)
  -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부사장)
  - 현대엔지비 대표이사 (부사장)

오창익
현대엔지비 대표이사 전무

- 생년 : 1959년생
- 학력 : 울산대 산업공학 학사 / KAIST 산업경영학 석사
- 주요경력
  -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기획팀장 (이사대우)
  -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기획실장 (이사)
  - 현대·기아자동차 R&D품질강화추진단장 (상무)
  -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기획조정실장 (상무)

장영욱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 부사장

- 생년 : 1958년생
- 학력 : 중앙대 경제학 학사
- 주요경력
  - 현대·기아자동차 판매정보화지원실장 (이사)
  - 현대·기아자동차 정보기획실장 (이사)
  - 현대·기아자동차 정보화추진사업부장 (상무)
  - 현대·기아자동차 정보기술본부장 (전무)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돌풍'

LG전자는 '퓨리케어(PuriCare)' 공기청정기가 출시 직후부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발표했다.

LG 공기청정기가 퓨리케어 브랜드를 사용한 직후의 1개월 판매량이 직전 한 달과 비교해 약 50% 늘었다. 최근 한 달간의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2.5배 규모로 늘어났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0월 28일 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에 퓨리케어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은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에 고객 니즈를 적극 반영한 것이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에 국내 업체 최초로 먼지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 1㎛는 1/100만m) 이하인 극초미세먼지를 감지하는 PM1.0센서를 탑재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친환경 차량 전성시대… 中 중심 빠른 성장

폴크스바겐사태후 하이브리드 판매↑

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이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관련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폴크스바겐의 경우 이번 사태 이후 독일 직원들이 연말 한 달에 가까운 장기 휴가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CNN머니 등 외신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파문 이후 판매 감소 전망과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한 달에 가까운 장기 휴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폴크스바겐 대변인은 내달 1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독일 공장 생산 라인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폴크스바겐 티구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생산 라인은 12월 21일에 가동을 멈추고 내년 1월 4일 재가동된다.

반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국내·외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1~10월까지 쏘나타 하이브리드,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3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총 1만7747대 가량 판매하며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판매는 지난 9월 1234대로 올해 연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폴크스바겐 사태로 10월 1487대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의 1만4746대 20.4% 증가한 것. 현대차는 내년 신차를 통해 친환경차 공략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일본 도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더욱 크게 증가했다. 올 1~10월까지 렉서스를 포함한 도요타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총 6743대로 전년(5864대)대비 23.3% 증가했다.

현대차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 판매 호조로 국산·수입 자동차를 합친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은 올해 10월까지 총 3만159대로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했다.

전기차 시장도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시장 규모가 지난해 7만대에 이어 올해 20만대, 내년엔 40만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달 2만4310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9% 급증했으며 글로벌 전기차 판매의 51.8%를 차지하며 미국을 제치고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올랐다. 또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시동을 걸면서 전기차 보급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현대·기아차,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는 6종이다. 국산 4종(쏘울·레이·스파크·SM3)과 수입 2종(BMW i3·닛산 리프)이지만 향후 다양한 전기차 출시가 예상되고 있다. 스웨덴 볼보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내 로컬 완성차 업체인 길리기차는 "2020년까지 전체 차량의 90%를 친환경차로 채운다"는 계획을 11월 19일 발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은 "2016년부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친환경차 전용모델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2016년 현대기아차 합산 친환경차 판매대수가 18만5000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구강검진

치아가 늘 신경쓰였는데
구강검진 덕분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암검진

나이가 들면서
암이 걱정이었는데
암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니 걱정 없네요!

영유아 건강검진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늘 신경쓰였는데,
영유아 건강검진 덕분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일반건강검진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이 늘 걱정이었는데
일반건강검진 덕에
한시름 놨네요

생 애 주 기 별
맞춤형건강관리
국가건강검진이
책임집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인생의 전환기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으로
건강체크 하니
속 편합니다!

건강한 삶의 첫 걸음, **국가건강검진**으로 시작하세요!

「민원24」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생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24」 : www.minwon.go.kr

국가건강검진으로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

-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발급 · 갱신 신체검사(시력,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 의료비 지원 혜택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단, 1차 검진필수, 암검진방법 절차준수)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만 18세 이상 암환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고객센터 1577-1000 |

LG화학 1등 만들고 LG유플러스 온 권영수 부회장

'1등 신화' DNA 접목… LGU+ '퀀텀점프' 노린다

LG그룹 내 검증받은 경영자
본원적 경쟁력 지속 강화해
신성장동력 발굴 집중할 것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사업 추진에도 박차

"적당한 목표는 늘 적당한 성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경영자는 늘 세계 최고,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꿈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자 혼자서 세계 1등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인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그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신임 부회장 프로필

▲1957년 서울생 ▲1979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81년 카이스트 산업공학 석사 ▲1979년 LG전자 기획팀 입사 ▲2006년 LG전자 재경부문장 사장 ▲2007년 LG필립스 LCD 대표이사 사장 ▲2008년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2012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본부장(사장)

LG유플러스의 새 사령탑을 맡은 권영수 부회장(58)이 1년 전에 한 말이다.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동문회장을 맡으면서 당시 학보에 실린 인터뷰 내용이다. 당시 권 부회장은 LG화학의 수장으로서 중국 자동차 기업 중 1위인 상해기차와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자동차 상위 5개 업체 중 3개를 고객사로 삼으며 중국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권 부회장은 LG그룹에서 승부사로 통한다. LG화학 사장(전시사업본부장) 시절 취임 2년 만에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분류되는 중대형 배터리 시장 1위 회사로 키웠다. 2007년에는 LG디스플레이 대표를 맡아 세계 1위 패널 회사로 키웠다. 당시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하락으로 4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를 취임 후 2분기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다. 경쟁사인 삼성을 제치고 글로벌 1위 업체 도약을 이끈 것이다.

이처럼 그는 LG그룹 안에서 '일등 신화'를 일궈낸 주인공이다. 그룹 주요 계열사를 이끌며 경영자로서 충분히 실력과 성과를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그는 무엇보다 임직원들에게 1등 마인드와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소통 경영'을 중시한다.

앞으로 권 부회장은 통신을 포함한 ICT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LG유플러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 부회장은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체된 내수시장의 한계를 뛰어넘고 글로벌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10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LG유플러스는 '탈통신'과 'LTE 올인' 전략을 주도한 결과, 최근 3년간 SK텔레콤과 KT를 압박하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는 통신업계와 정부기관을 넘나드는 이상철 전 부회장의 리더십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만년 꼴찌'의 굴레를 벗진 못했다. 시장 점유율 20% 벽은 여전히 높다. 조직과 사업 전반에 과감한 혁신을 해야만 '퀀텀 점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권 부회장은 그룹의 핵심 성장 축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만큼, '1등 DNA' 신화를 LG유플러스에도 접목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트워크 대신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새로운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통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하면서 전자, 가전사들과의 네트워크와 기기 사이클에 해박한 그의 노하우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권 부회장은 LG디스플레이, LG화학 CEO 시절 사업적 인연으로 애플 팀쿡 CEO를 비롯해 글로벌 전자기기 리더들과 남다른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중장기 일등 전략으로 내세운 IoT 사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 위주로 빠르게 사업구조를 바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재무, 기획통'이라는 점에서 인수·합병(M&A)을 통한 LG유플러스의 외연 확장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LG디스플레이 CEO를 맡기 이전 LG그룹에서 M&A 추진 테스크팀, LG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자율 주행차량 영상, 스마트폰으로 본다

LGU유플러스
LTE 라우터 장착 실시간 영상 전송

LG유플러스가 지정된 코스를 달리는 자율 주행차량에서 촬영한 풀HD 영상을 롱텀에볼루션(LTE)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광대역 실시간 영상 전송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 행사장에서다.

이 서비스는 무인 자율 주행차량에 LTE 라우터를 장착해 주행 중 촬영한 풀HD 영상을 1초 미만의 지연시간으로 스마트폰 및 PC에서 볼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서비스를 기반으로 무인 로봇, 자율 주행차량과 같은 미래 기술에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실시간 영상 서비스는 풀HD급 영상을 스마트폰·PC·TV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CCTV, 블랙박스가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영상과 달리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코엑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관람객이 자율 주행차량을 시승해 보고 있다. /LG유플러스

한편 LG유플러스는 서울 도심지를 LTE 탑재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전광판에서 실시간 볼 수 있는 서비스 시연도 이날 진행했다.

/정문경 기자

10월 이동전화 가입자, 단통법 이후 최대

가입자 수 240만9200명 기록
기변 비율 처음으로 절반 넘어
새 아이폰·SKT영업정지 원인

지난 10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지난 10월 초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으로 인한 이통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가열됐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10월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40만9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월간 가입자로는 최대치다.

가입유형별로 나눠보면 신규가입이 57만8460명이었고, 번호이동은 59만9871명이었다. 특히 단통법 이후 '대세'가 된 기기변경은 123만869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51.1% 기록했다. 월별 이동전화 가입자 중 기기변경이 50%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이통3사의 10월의 기기변경 가입자도 단통법 시행 후 일제히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이 59만8784명으로 60만명에 바짝 다가갔고 KT가 30만726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만명을 넘겼다. LG유플러스도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한 20만7365명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업계는 지난달 가입자가 단통법 시행 뒤 최대를 기록한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10월 23일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다.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한 아이폰의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지난달 유독 높았던 것도 아이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휴대전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0월 초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통신사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가열된 점이 꼽힌다. 영업정지를 당한 SK텔레콤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고, 다른 사업자들은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고객 유치에 전력투구하면서 평소보다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SK텔레콤의 신규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뒤 가장 적은 15만3371명에 그쳤고,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KT에 밀리며 2위(17만1557명)로 주저앉았다.

/정문경 기자

KT
'올레 해피온' 이용자 3000명
'2016 나만의 포토달력' 증정

KT가 가족 소통 애플리케이션(앱) '올레 해피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6년 나만의 포토달력'을 제작할 수 있는 상품권 증정 행사를 연다.

29일 KT에 따르면 올레 해피온은 중장년층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한데 모은 맞춤형 앱이다. 올레 해피온 이용 시 가족사진 등 원하는 이미지를 휴대폰 첫 화면에 쉽게 등록할 수 있고, 로그인 과정 없이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조회도 가능하다.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대신 설정해 줄 수도 있다.

나만의 포토달력 이벤트는 다음달 15일까지 응모 가능하다. 행사 참여 고객 중 총 3000명을 추첨, 포토달력 상품권을 제공한다. 배송비도 무료다. 행사 참여 직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무협 "한국무역, 내년엔 1조 달러 회복할 것"

내년 경기 회복·저유가 지속에
무역 규모 1조 50억 달러 예상
석유제품·석유화학 증가할 듯

우리나라의 수출이 계속 부진하면서 4년간 이어져 왔던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국제유가 내림세 진정 등에 힘입어 1조 달러를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2015년 수출입 전망 및 201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수출은 2.3% 증가한 5440억 달러, 수입은 4.8% 증가한 4610억 달러를 기록해 83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의 무역규모도 올해 9720억 달러(추정치)보다 늘어난 1조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6년 수출입 전망〉 (억 달러, 전년동기비 %)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
		1~10월 (실적)	연간 (추정)	
수출	5,727 (2.3)	4,402 (-7.6)	5,320 (-7.1)	5,440 (2.3)
수입	5,255 (1.9)	3,674 (-16.6)	4,400 (-16.3)	4,610 (4.8)
수지	472	728	920	830
무역 규모	10,982	8,076	9,720	10,050

주 : ( ) 내는 증가율 자료:한국무역협회

올해 무역규모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경쟁국에 비하면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상반기 3.3%로 올랐고 세계 수출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올랐다. 수출 물량 증가율도 상반기 5.6%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보다 높았다.

수출 품목도 다변화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지난 10월까지 35.7%로 지난해 33.8%보다 올랐고, 10대 주력 품목의 수출 비중은 올해 10월까지 34.3%로 지난해 35.1%보다 낮아졌다.

내년 무역환경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 저유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에 따라 올해 3.1%보다 높은 3% 중반대의 성장이 예상됐고 세계교역량도 4%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 올해 크게 부진했던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각각 7.8%,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가 안정되고 주요국의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일반기계(2.8%), 무선통신기기(2.1%), 자동차(1.0%) 분야 수출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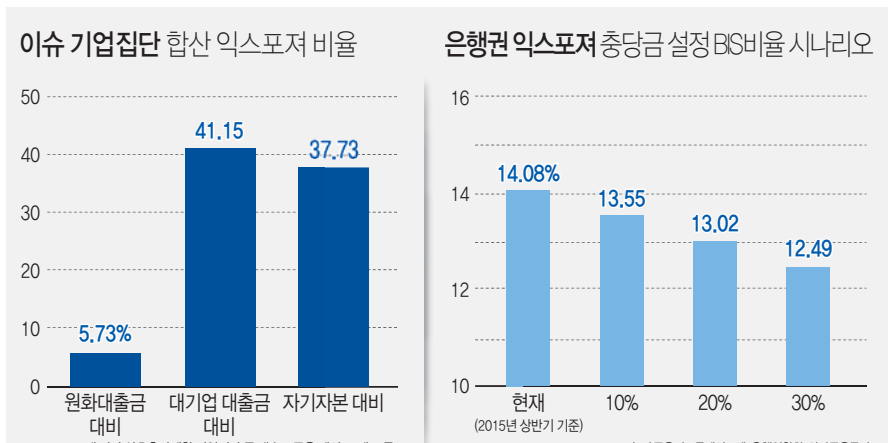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조선(-2.6%), 디스플레이(-2.3%), 철강(-1.3%)은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빨라지는 구조조정… "얼마나 더" 은행권 부담감

〈대손충당금〉

은행 대손충당금↑· 자산건전성↓
한은 "국내 인상 늦춰 충격 완화"



"하반기 들어 기업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의 고민이 커졌다.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 수록 은행권 자산건전성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100조원(13개 일반은행) 규모로 추산되는 기업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문제는 커진다. 하지만 이슈기업들의 위험노출액(exposure) 비율이 높지 않아 당장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은행권 구조조정 부담, 현재로선 제한적

29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18개 그룹 이슈기업 집단의 원화대출금 대비 익스포져 비율은 5.73%다.

대기업대출금 대비 익스포져 비율은 41.15%다.

하나금융자 김상만 연구원은 "대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전체 원화대출금 대비 5~6%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대출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도 은행권 자산건전성 비율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18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4.08%이다. BIS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은행들이 관련 대출의 10%를 충당금으로 쌓을 경우 BIS비율은 13.55%로 낮아진다. 30%를 설정할 경우에도 BIS비율은 12.49%로 떨어지는데 그친다.

교보증권 황성규 연구원은 "기업대출, 특히 대기업 계열사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2~3년 전부터 발생해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고, 선제적인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스탠스가 은행의 충당금 이슈로 이어질 여지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연구원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대기업 구조조정이 은행의 희생 위에 수익성 낮은 기업들이 연명하는 임시방편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영을 책임져 왔던 대주주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조하는 완벽한 구조조정 방안은 불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면 적어도 은행(지주)투자자 입장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긴장 늦출때는 아니다

은행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식' 쏟아 부은 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지만 경기 우려로 대출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다.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줬다가 부실화된 대출은 2009년 13조7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21조6000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부도기업에 대한 은행권 대출도 2010년 1조728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5251억원으로 104% 늘어났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적잖다.

LG경제연구원은 2015년 1·4분기 현재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 중 34.9%를 좀비기업으로 분류했다. 10개 중 3개가 자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얘기다. 기준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이하이면서 빌린 돈이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의 5배 이상인 기업들이다.

한국은행의 분류 기준으로 보면 2014년 현재 15.2%가 좀비기업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2만5452개 중 3295개나 된다.

한국기업평가 김정현 실장은 " 2013년 대기업 부실 증가로 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 크게 하락했다"면서 "기발생 부실정리 부담이 상존한 만큼 부실완충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는 기업신용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은행권 실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날 금융당국은 지원불가 결정을 내린 채권은행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 같은 부실을 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다가오는 美 금리인상… 국내 영향은?

내년 최대 1%포인트 상승 전망
"국내 금리인상 시간 걸릴 것"

다음달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2월 15~16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머니 무브(자금 이동)'를 가져올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국제금융센터와 해외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금리인상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개선돼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사한 인상 가능성도 지난달 64%에서 최근 92%로 높아졌다.

하지만 미 금리인상이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 정순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지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을 고민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국내 기준금리를 곧바로 올리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려됐던 추가 인하보다는 인상 시기를 고민하기 시작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다음달 미 금리 인상에 대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는 한 연내 인상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금리 인상의 속도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미 연준은 그동안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다.

신흥시장국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가며 인상 속도를 결정할 것이란 해석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선 연준이 현재 제로(0) 수준인 기준금리를 내년 한 해 동안 3~4차례에 걸쳐 0.75~1.00%포인트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11개 해외 투자은행(IB)은 올 12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BNP파리바, 바클레이즈, 노무라 등 3곳은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가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자 올 12월로 인상 시점을 앞당겼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 12월에 0.25%포인트 올린 뒤 내년 중 총 4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총 1.0%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의 0~0.25%에서 내년 말 1.25~1.50%로 상승할 전망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NH농협은행, 어르신 말벗서비스 '행복한 겨울 동행'

NH농협은행은 지난 27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말벗 대상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어르신과 행복한 겨울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들은 '말벗서비스'를 통해 농촌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주 1~2회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말벗이 되어 드리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행사에 참석한 백곡면 어르신들에게 방한이불과 방한조끼, 무릎담요 등을 증정하는 한편 백곡면 마을회관에 김장김치 100kg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금감원 Q&A

전세기간 만료 전 '중도상환수수료' 임대인 몫

Q.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빌린 세입자입니다. 이자를 잘 내고 있던 중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은행에 중도상환을 하겠다고 했더니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다 했다며 제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우선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부담한 각종 비용들을 이자를 통해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책임에 따라 발생한 세입자의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전세기간 중에 집을 비우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니, 그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집을 비워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해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김보배 기자 bobae@

시선집중! 이런보험

삼성화재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

신생아 관련 보장·산모실손의료비 담보

3개월 배타적사용권·품질인증 받아
"엄마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만 쏙쏙"

임신·출산 질환 실손입원의료비를 보장한 삼성화재의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이 인기다.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금융소비자연맹의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품질 인증을 받았다.

2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개정을 통해 30세까지 주요 담보의 보장을 강화하고,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 등 담보를 추가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연평균 신생아는 2010년 이후 40만명 이상으로, 자녀보험 시장이 커져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자녀보험 주고객은 20~30대로 인터넷을 통해 자녀에 관한 상품을 꼼꼼히 비교 선택하는 성향이 강하다.

젊은 세대인 만큼 다른 보험(통합보험 등 초장기 상품, 연금, 저축보험 등)으로의 연계판매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신경 쓰는 분야다.

NEW엄마맘에쏙드는자녀보험은 통상적인 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 시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산모들이 걱정하는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제공한다. 태아의 선천성 발달장애 중 뇌성마비 및 다운증후군 진단 시에는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한다.

유치 또는 영구치의 충치 등으로 인한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존치료지원금'과,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도 강화했다.

또 암 진단·수술·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등 종합적인 암 보장이 가능하다. 암 입원일당의 경우 입원 1일째부터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일정 가입조건 만족 시 출산용품 지원이나 포토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상무)은 "이전엔 임신질환 실손의 경우 통계집적이 어려워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받을 수 없었다"며 "계속 확대되는 자녀보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엄마에게 정말 필요한 보장을 담았다. 의료과잉을 억제하면서도 산모의 임신질환 치료비 부담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IBK기업은행

서류제출·담보없이 대출하는 'i-ONE소상공인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 영업점 방문, 서류제출과 담보제공 없이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대출 상품 'i-ONE소상공인대출'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각종 재무자료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지 않고 모바일뱅킹 'i-ONE뱅크'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신청, 심사·실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BC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기업은행으로 지정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의 외부신용등급(CB등급)이 6등급 이상인 고객이다.

대출한도는 CB등급 및 최근 1년간 BC카드 매출대금 입금 실적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비율은 10~100% 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상환 비율에 따라 최대 0.5%p 대출금리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김보배 기자

실적·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맘 잡는 두가지 해법

곳간 여는 기업

④ 곳간 열었다고 다되나. 진정한 주주 친화정책은

꾸준한 성장땐 "최고 투자처"
잠깐 부진해도 잠재력에 "합격"
일부선 "지배구조 투명화 필요"

지난해 '으리(의리)'열풍으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 했다. 광고 소재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으리 신드롬'을 일으켰다. 의리의 사전적 개념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예의를 말한다. 신뢰가 약해진 상황에서 의리에 대한 갈구는 더 컸다.

주식시장도 다르지 않다. 주주와 상장기업 간의 의리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새 경쟁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배당정책을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리를 지키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의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주주에게 진정한 의리를 지키는 방법은 실적과 지배구조 투명화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투자자 스스로도 '냄비' 근성을 버리고 기업에 무한 신뢰를 보낼 때 쌍방통행의 주주가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소액주주의 이익이 곧 기업 이익

지난 7월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삼성물산 주주 69.53%가 합병에 찬성했다. 예상 밖 압도적 찬성이다. 이로써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 44일간의 피 말리는 전투도 일단 막을 내렸다.

같은 시각에 열린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선 합병안이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됐다 .

소액주주들이 손해보는 장사인데 왜 삼성의 손을 들어줬을까.

당시 한 소액주주는 "합병에 실패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 보다는 새로운 합병법인을 만들어 미래의 희망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은 물론 다른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지금껏 우리 기업들은 기업 합병·분할이나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반대에 부딪혀 적잖은 돈을 쏟아 부어야 했다.

지난 2007년 LG그룹이 통신계열사를 합병하는 데 1조원, 2008년 KB금융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데 2조4200억원이 들었다. 2012년 롯데케미칼·KP케미칼, 2014년 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 등 합병을 통한 사업재편이 무산됐다.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는 실적과 성장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한다고 주주가치가 올라갈까.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다(No)"고 답한다. 진정한 의미의 주주친화정책은 실적과 성장에 있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증권가 한 연구원은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는 기업 이익 증가이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나타난다"면서 "주주의 의리는 기업의 실적이 단기적으로 부진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주식을 보유하고, 혹은 추가 매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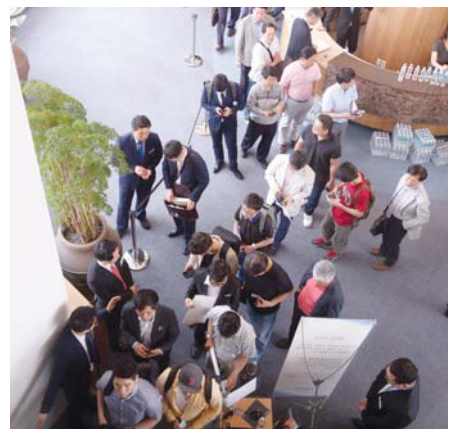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695개사의 지난해 활동을 분석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수를 산출한 결과 취약 수준인 B등급 이하를 받은 기업이 전체의 84.3%(586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694개사 중 80.7%(560개사)가 취약등급으로 분류됐던 것과 비교해 3.6%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정책당국도 지배구조 선진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서 보듯이 국내 지배구조 제도는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우선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판 스튜어드쉽코드도 연내 도입해 내년부터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상장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7월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계약 안건을 주주 결의에 부치는 임시 주주총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왼쪽) 같은 날 이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의 투표결과가 69.53% 찬성으로 승인 되자 삼성물산 주주들이 주총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삼성물산·뉴시스

KB투자증권 과함께하는 자산관리

IoT 시대 대비 나선 SKT 성장전략, 꼼꼼히 살펴야

⑩ SK, CJ헬로비전 인수 속내는?

최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왜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 결정했을까.

CJ헬로비전의 연간 매출액은 1조3000억원 수준인 반면, SK텔레콤의 연간 매출액은 17조원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한 매출액 증대효과는 사실 크지 않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첫 번째 이유는 시장지배력 강화이다. 2015년 3·4분기 말 기준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가입자는 415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94만명에 달한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합병을 하게 되면 SK브로드밴드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기존 11%에서 26%로,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기존 25%에서 30%로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케이블TV 가입자가 IPTV로 넘어오면서 IPTV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M&A라는 인위적인 시장 구조 개편을 왜 해야 했는가다.

SK텔레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플랫폼을 준비하기 위해 CJ헬로비전을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휴대폰 보급률은 113%를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도 107%에 달하는 상황이다. 반면 통신사업자의 전통적인 사업이었던 이동통신, TV, 인터넷, 전화 등의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IoT(사물인터넷) 플랫폼 선점'이라는 중장기적인 사업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ICT 산업의 미래는 IoT에 있고, IoT의 밸류체인은 하드웨어, 컨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으로 구성된다. 통신사의 미래는 플랫폼 내에서 네트워크의 가치를 얼마만큼 향상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K텔레콤은 2016년 상반기 33개사와 협력해 공동 개발한 스마트홈(Smart Home)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IoT 시대에 앞서 플랫폼 선점을 위해 변화를 모색 중인 SK텔레콤의 미래지향적 사업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기대된다.

/정승규 선임연구원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2팀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전용 앱 '신한NEO50 퇴직연금' 출시!

신한금융투자는 퇴직연금 전용 애플리케이션 '신한NEO50 퇴직연금'을 출시했다. '신한NEO50 퇴직연금'은 고객이 직접 퇴직연금 운용지시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다. 일반 운용지시(매수·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지정한 기간, 횟수, 일자에 따라 펀드, 정기예금, RP 등을 반복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할매매 기능까지 갖추어 나만의 투자성향과 스타일에 맞는 적립식 펀드를 설계해 운용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50억 미만 '소규모 펀드' 대청소

내년 말까지 100여개로 확 줄여

금융당국이 오는 12월부터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내년 말까지 700여개 이상 정리해 100여개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373개였던 소규모 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 815개로 전체 공모펀드(2247개)의 36.3%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후 정리'를 유도해 펀드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해 왔다. 다만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펀드 신설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고 판단, 일제 정리를 통해 2016년 말까지 소규모 펀드 개수를 100개 내외로 줄이고 전체 공모펀드 내 소규모 펀드 비중을 5% 내외로 낮출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소규모 펀드 일제정리에 나선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소규모펀드 정리 1차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5월 말까지 815개 소규모펀드 중 581개가 정리된다. 이들 펀드는 임의해지(238개)나 타 펀드와의 합병(19개), 또는 다른 모(母)펀드의 자(子)펀드로 편입(108개)할 예정이다. 나머지 216개 펀드는 추가 퇴출을 피하기 위해 향후 3개월 내 추가 자금모집을 통해 50억원 이상으로 설정액을 늘려야 한다. 실패하면 앞서 정리된 펀드처럼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펀드 234개에 대해 추가 정리계획을 운용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불이익이 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 신규 펀드 등록을 억제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금투협과 함께 소규모 펀드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소규모 펀드는 내년 6월말 기준 234개(11.1%) 이하로 축소되고 정리계획이 미수립된 펀드(234개)에 대한 정리가 일정 수준 진행된 내년 말에는 최대 100여개(5%)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높아야 잘 팔린다… 아파트 마천루 경쟁

〈30층 이상 초고층〉

탁 트인 조망권·일조량 우수
주변일대 랜드마크 효과까지
투자가치 높아 분양성적 우수

85층 '해운대 엘시티 더샵'
청약 최고 경쟁률 73 대 1

서대전역 우방아이유쉘 스카이팰리스 항공조감도.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지방에서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도심 내 고밀도 업무시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거지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는 우수한 일조와 조망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면서도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스카이라인은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효과까지 있다. 투자가치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변에 다양한 상권이 생겨 생활 편의성도 높다.

청약과 분양성적도 좋다.

지난달 28일 계약이 실시된 85층 초고층 아파트 '해운대 엘시티 더샵'은 청약에서 최고 73대 1, 평균 1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초고층 아파트인 '해운대 센텀 경동리인'과 '협성휴포레 부산진역 오션뷰' 등도 모두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성적도 우수하다.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경우 정당계약 기간 내 70% 이상, 계약 5일만에 사실상 완판됐고 '해운대 센텀경동리인'도 분양이 100% 완료됐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최근 수요자 사이에서 조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초고층 아파트도 교통이나 편의시설 못지 않게 중요도가 높아졌다"며 "아파트 단지 내부만 따지면 같은 용적률이라도 층수가 올라가면서 건폐율을 낮출 수 있고 동간 거리도 늘릴 수 있어 사생활 보장은 물론 향후 조망 프리미엄을 통해 시세차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에 맞춰 대전과 부산 등에서 초고층 아파트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

우방건설과 남선알미늄 등을 거느리고 있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M티케이케미칼은 13일 대전 중구 오류동 73-1번지(서대전역네거리 인근)일원에 '서대전역 우방 아이유쉘 스카이팰리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전용 84·155㎡ 2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1층~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입주민 커뮤니티·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서대전역(광역철도·KTX)가 가까우며 도시철도 오룡역(1호선)과 서대전네거리역(1·2호선)이 인접한 쿼드러블 초역세권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SK건설은 11월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서 '수영 SK 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13개동, 전용면적 59~84㎡ 1245가구(임대 6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85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과 망미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다. 연수로와 번영로, 광안대교,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이 편리하다. 또한 배산초등학교와 망미중학교, 남일고등학교 등이 가깝다. 내부는 4베이, 4룸 설계(일부세대에 한함)가 적용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 르 포 | 눈꽃 내린 '천안 불당 푸르지오' 견본주택 가보니…

39평도 50평대로 보이는 넓은 주방… 주부들 방긋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30분 만에 도착한 충남 천안 불당 푸르지오 견본주택은 전날부터 내린 폭설로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견본주택은 KTX천안아산역을 빠져나와 지하철 1호선 아산역 2번출구 인근 500m(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810)지점에 있었다.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칼바람이 부는 엄동설한의 날씨에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다. 견본주택 주차장은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꽤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천안 불당 푸르지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1층 유니트를 관람한 뒤 상담받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전용 110㎡ 거실 내부 전경.

주말 3일간 1만5000명 방문
불당 신도시 마지막 공공택지
외고 등 명품학군 수요도 갖춰
가족 단위 실수요층 관심 ⬆

주방 상판 엔지니어스톤 적용
주부 동선 배려 'ㄷ'자형 설계
알파룸·슬라이딩 도어도 설치

견본주택 내부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쌍용동 일대에서 한 달간 열린 사전 홍보관에는 1000~2000통에 가까운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견본주택 개관이 임박해서는 하루 100통씩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는 것. 주말 3일간 1만5000여명이 다녀갔다. 방문객은 신혼부부 등 가족 단위 실수요층이 주를 이뤘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가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3.3㎡당 950만원, 오피스텔 510만원 수준임에도 쌍용동과 불당동에서 이전 수요 선호도가 높다"며 "불당 신도시(천안권역)에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공공 택지인데다 명품 학군 수요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지 인근에는 자율형 사립고인 충남삼성고와 충남외고가 있으며 강남을 방불케하듯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덧붙였다.

견본주택 내부에서 둘러볼 수 있는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99㎡C, 110㎡ 아파트와 전용 84㎡A 오피스텔이었다.

99㎡C형은 3개면에 모두 창문이 달린 3면 개방형이었다. 드레스룸이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안방은 15자(장롱 기준) 크기로 활용할 수 있다. 알파룸은 무료로 제공되며,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돼 활용도가 높다. 39평형이지만 주방은 50평형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넓었고 주부들의 동선을 배려한 'ㄷ'자형으로 설계됐다.

주방 상판에는 엔지니어스톤이 적용됐다. 엔지니어스톤은 일반 천연석과는 달리 내구성이 강해 물에 마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주방에는 따로 펜트리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대신 현관에 각종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현관 펜트리가 제공된다.

이외에 유상 옵션으로 '우리가족 충전소'라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 공간은 투명한 유리 공간으로 꾸며져 내부가 훤히 보이며 서재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천장 높이는 2.43m로 설계됐다.

전용 110㎡는 들어서자마자 양쪽에 넓은 현관창고와 펜트리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평수가 큰 만큼 알파룸이나 복도 등 이동 공간은 넓고 여유로웠다.

방 구조는 ㄷ자 형태다. 2개의 방이 연결돼 있지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돼 있어 개별적인 공간의 알파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천장 높이는 기존 2.3m보다 10cm 높은 2.4m로 설계돼 개방감을 확보했다.

전용 84㎡A 오피스텔 거실에는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소음방지를 위한 로이복층유리 설계가 적용된 게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일반 아파트를 빼닮은 'ㄷ'자형 주방과 렌지 후드, 전기용 레인지, 음식물 탈수기, 센서조절기 등이 설치됐다.

주방과 거실 양쪽에 창문이 달려 있어 채광과 맞통풍이 좋다. 이외에도 다용도실에는 김치냉장고가 하나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이 확보돼 있으며 창문이 달려 있어 환기도 잘 되게 설계됐다. 수납공간은 김치냉장고 등을 고객이 원하는대로 설치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박상길 기자

부동산 시세표 (강남·서초·송파·용산 外)

구 이름	지역	아파트명 / 문의처	면적	매매가(백만원) 하한	상한	등락
◇강남	개포	주공2단지	71	1160	1300	↓5
		573-5739	80	1300	1450	0
		현대1차	154	1200	1300	0
		572-6800	193	1350	1480	0
	대치	동부센트레빌	151	1750	1900	0
		555-7755	177	1900	2000	0
		선경1차	102	1250	1400	0
		5695-114	139	1550	1700	0
		한보미도맨션1차	188	1750	1950	0
		3453-8885	219	2300	2600	0
	도곡	개포우성4차	114	1100	1170	0
		572-3311	153	1500	1580	0
		삼익	114	720	770	0
		558-7373	171	1080	1100	0
		아카데미스위트	165	1050	1100	0
		571-2555	224B	1200	1450	0
		타워팰리스2차	159	1150	1300	0
		555-7755	220D	1800	2000	0
	수서	까치진흥	56	370	430	0
		459-7300	69	500	550	0
	압구정	한양3차	128	1500	1550	0
		3443-4924	181	1800	2020	0
		한양5차	105	1200	1300	0
		3448-8100	132	1500	1650	0
		현대사원	119	1500	1550	0
		544-5700	165	1800	2000	0
	역삼	개나리래미안	109A	1050	1150	0
		566-4011	146	1340	1380	0
		역삼푸르지오	79	780	840	↑5
		566-4011	104	980	1060	↑5
	일원	목련타운	122	900	1100	0
		459-7300	160	1020	1270	0
		수서	59	330	350	0
		3412-1161	85	520	550	0
	청담	진흥	111	960	1060	0
		545-3118	148	1350	1470	0
		청담삼성3차	85	630	700	0
		542-5558	105B	800	840	0
◇서초	반포	래미안반포퍼스티지	147T1	1870	2050	0
		599-4700	172T1	2150	2350	0
	방배	방배1차현대홈타운	82	550	600	0
		532-8999	109	750	850	0
		삼익	96	680	730	0
		5822-007	166	1000	1070	0
	서초	래미안서초스위트	125	1060	1150	0
		536-2228	125A	1060	1150	0
◇송파	마천	송파파크데일1	108A	500	530	0
		402-8114	147A	600	660	0
	문정	문정래미안	146	730	830	0
		449-0002	159A	730	840	0
	신천	장미1차	128	900	920	0
		422-9800	152	1000	1050	0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160C	1150	1300	↑25
		2203-5959	197C	1250	1500	0
◇용산	도원	삼성래미안	81A	370	430	0
		717-3399	142A	600	700	0
	용문	브라운스톤용산	79	450	500	0
		717-3399	106A	600	670	0
	용산동5	용산파크타워	126B	1100	1200	0
		796-3322	158A	1350	1450	0
	원효로4	강변삼성	79B	420	480	0
		717-3334	112A	550	610	0
	이촌	강촌	109A	700	730	0
		790-0099	142	920	970	0
		이촌우성	82	520	540	0
		798-3223	148	880	1100	0
	한남	한남힐스테이트	111B	650	750	0
		749-9100	155A	900	1080	0
	효창	효창파크푸르지오	77A	500	550	0
		704-4989	109	650	730	0
◇종로	무악	무악현대	85	360	428	0
		736-3600	109	500	570	0
◇중랑	망우	금호어울림	76	290	315	0
		495-8989	104C	340	380	0
	면목	두산4차/5차	82C	280	320	0
		434-2500	108B	350	420	0
◇영등포	당산	강마을삼성래미안	82	350	430	0
		2135-2070	109	470	540	0
	당산동3	동부센트레빌	117	600	620	0
		2635-8989	136	620	700	0
	당산동4	유보라팰리스	109B	580	710	0
		2135-2070	187	940	1360	0
	대림	대림현대	79	290	300	0
		832-5566	105N	350	380	0
	문래동5	문래두산위브	89	260	290	0
		3667-7100	109	300	350	0
	신길	삼성래미안	79B	295	335	0
		832-0033	108	370	430	0
		신길자이	109	420	495	0
		832-0033	145	425	595	0
		우성4차	99	390	410	0
		834-4924	112	420	460	0
	양평동1	신동아	72	270	290	0
		2135-2070	89	360	400	0
	양평동6	한솔	82	250	295	0
		2672-1100	109	320	360	0

부동산 114

유럽에 빠진 한국, 먹거리도 유럽風

佛 빵·伊 아이스크림 등 외식브랜드 진출 잇따라

유럽 문화가 안방에 이어 식탁까지 점령할 기세다.

'이케아'의 진출을 전후해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는 몇년간 북유럽 스타일이 주목받았다. 자연주의 콘셉트의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북유럽 스타일은 가구는 물론 패브릭, 소품 시장까지 안방공략에 성공했다. 안방 상륙에 성공한 유럽문화는 최근에는 식탁으로 무대를 옮겼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명 외식 브랜드들이 앞다퉈 한국에 진출하며 먹거리에도 유럽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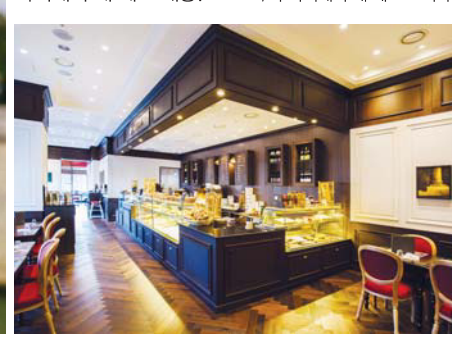
프랑스 유명 디저트 브랜드 '라 파티세리 데 헤브'는 최근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꿈의 제과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 파티세라 데 헤브'는 2009년 론칭한 비교적 신생브랜드다. 그러나 명성은 오랜 역사를 지닌 베이커리 브랜드 이상이다.

호텔경영자 티에리 테시에와 미슐랭이 인정하는 셰프이자 파티쉐 필립 콩티치니가 손잡고 만들었다. 콩티치니는 세계 페스츄리컵 대회에서 프랑스팀 챔피언십을 이끌었다. 설립 1년만에 현지 언론으로부터 파리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또 미식사이트 '베스트 텐 닷컴'에서 과자케이크 부문 2위에 올랐다.

라 파티세리 데 헤브는 서울 시내에 1호점 오픈을 준비중이다. 한국에 오픈하는 매장에서도 프랑스에서와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 셰프가 상주할 예정이다.

아모리노의 장미 젤라또. /아모리노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1호점 오픈을 준비중인 라 파티세리 데 헤브 매장. /라 파티세리 데 헤브 코리아


베이커리 브랜드 브리오슈 도레 여의도점./대우산업개발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브랜드 '아모리노'도 지난 27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1호점을 오픈했다. 아모리노는 이탈리아 정통 아이스크림인 '젤라또'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저트라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프랑스 파리를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 사이에서 '파리에 가면 꼭 먹어야하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전 세계 13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14번째 진출국이다. 아모리노는 장미모양 젤라또가 대표 메뉴로 마카롱과 초콜릿,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 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진출을 기념해 내달 4~6일에 아모리노 1호점이 있는 가로수길 곳곳에서 3000명의 시민에게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하고 이 장미를 매장으로 가져오면 같은 색의 젤라또를 3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도 벌일 예정이다.

대우산업개발이 국내에 소개한 베이커리 브랜드 브리오슈도레도 유럽 먹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다. 2013년 국내에 론칭한 브리오슈도레는 연 매출 1조원을 상회하는 글로벌 외식 기업 르더프의 대표 브랜드다. 여의도 1호점으로 시작한 매장은 현재 7개 매장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크라운 해태제과의 '빨라쪼', 젤라또 브랜드 '구스띠모', SPC의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등도 오랜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브랜드다. 크라운 해태는 지난해 빨라쪼를 이탈리아본사로부터 인수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새로 나왔어요

옥션
대상청정원 휘슬링쿡 온라인 첫선

옥션이 30일부터 대상청정원의 신제품 '휘슬링쿡'을 가장 먼저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소리로 요리하는 세계가정식 '휘슬링쿡' 둥 ▲닭고기 크림스튜(400g, 8900원) ▲육즙가득 난자완스(400g, 8900원) ▲토마토 핫치킨스튜(400g, 8900원) ▲올리브 포크 로제스튜(400g, 8,900원) ▲코다리 표고조림(400g, 7700원) 총 5종이 옥션에서 선판매된다.

옥션은 청정원 '휘슬링쿡'의 온라인 첫 출시 기념 오는 12월 6일까지 최대 24% 할인 판매와 제품 구매 시 스파게티면 또는 종가집 맛김치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유현희 기자

갤럭시
차승원의 아우터 '사르토리얼 테크'

삼성물산 패션부문 남성복 갤럭시는 29일 서울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갤럭시 매장에서 모델 차승원과 함께 '사르토리얼 테크(Sartorial Tech) 아우터'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발수, 방풍, 투습 기능을 갖췄다. 최고급 폴란드산 구스(Goose)다운을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갤럭시는 '사르토리얼 테크 아우터' 출시를 기념해 현대 본점 갤럭시 매장에 브랜드의 모델인 배우 차승원을 초청하고, 구매고객 대상 행운의 열쇠 찾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갤럭시는 행사 당일 현장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찾은 고객에게 '사르토리얼 테크 아우터'를 증정했다.

/유현희 기자

홈플러스 "방한화 준비하세요" 홈플러스가 내달 9일까지 전국 141개 매장에서 부츠·방한화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대전에는 26만족의 실내화 및 겨울부츠가 특가로 판매되며 3만원 이상 구매시 상품권 3000원권을 증정한다.29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방한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올 겨울 외식 트렌드는 '불맛'

고온·단시간 조리로 직화 효과
피자부터 간편 조리식품까지 다양

최근 고온에서 단시간 조리해 특유의 맛과 향을 더한 직화 방식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그동안 일반 가정에서는 화력이나 불 조절 등의 노하우 부족으로 불 맛을 내기 쉽지 않았다. 식품·외식업계는 불에 직접 구운 스테이크를 올린 피자부터 간편 조리식품까지 다양한 신메뉴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올 겨울 불 맛을 제대로 살린 '직화 스테이크 피자'(사진)를 출시했다.

이번 도미노피자의 겨울 신제품은 리얼 직화 스테이크와 탱글탱글한 식감을 선사하는 통새우, 그리고 직화의 풍미를 더욱 살려줄 보코치니, 모짜렐라, 프로볼로네, 파마산 등 4가지 이탈리안 치즈가 어우러져 한 입 가득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직화 방식으로 구워 기름기 없이 풍부한 육즙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신선한 씨푸드가 더해져 기존의 스테이크 피자와 다른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대상 청정원은 간편하게 짬뽕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분말 형태의 짬뽕 양념 '직화짬뽕'을 출시했다.

직화짬뽕은 로스팅 치킨 육수에 매콤한 고춧가루와 진한 고추씨 기름 양념으로 얼큰하고 진한 직화짬뽕 맛을 구현해냈다. 여기에 짬뽕의 기본 재료인 새우, 오징어, 굴, 홍합 등 7가지 해산물도 함께 넣어 불 맛을 살린 매콤한 국물 맛을 집에서도 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버거킹은 직화 방식으로 구운 100% 순 쇠고기 패티와 네 가지 치즈의 조화를 꾀한 '스노우 치즈 와퍼'를 겨울 한정판 신제품으로 내놨다. 스노우 치즈 와퍼는 와퍼 패티 위에 까망베르, 모짜렐라, 프로볼로네, 화이트체다 등 네 가지 화이트 치즈를 올려 불맛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꾀했다. 앞서 선보였던 '콰트로치즈와퍼'는 100% 순 쇠고기를 직화로 구워 와퍼 특유의 깊은 맛과 향을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1000만개 판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올 겨울 직화를 콘셉트로 한 제품이 외식업계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 맛의 풍미를 제대로 살린 신제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에 선보인 직화 스테이크 피자는 강한 불기운을 더해 깊은 맛을 살린 직화 스테이크와 통새우, 이탈리안 치즈 토핑의 조화로운 맛으로 불 맛을 찾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롯데그룹 '신문고 무기명제' 도입

다양한 기업문화 개선안 제안

롯데그룹이 기업문화 개선에 속도를 낸다.

롯데그룹은 지난 2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기업문화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과 이경묵 서울대 교수, 내·외부위원,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진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롯데그룹의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지난 한달 간 추진해온 사항들을 중간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롯데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외부 위원들은 "직원 대상이 아닌 최고위층부터 선제적 변화가 있어야 롯데가 바뀐다"고 지적했다. 또 ▲협력업체가 기탄없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신문고 무기명제 도입 ▲여성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직원들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공유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그동안 내부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지적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철저한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 변화하는 롯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는 내외부 위원들 외에도 직원들의 충고까지 기업문화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문화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2월 9일까지 기업문화 개선 제안을 사내 공모하고 있다. 공모전 아이디어 선정자에게는 신동빈 회장의 포상이 주어지고 채택된 아이디어는 검토 후 현업에 곧바로 적용하게 된다.

롯데 기업문화개선위원회는 ▲조직 자긍심 ▲일하는 방식 ▲경직된 기업문화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기업이미지 등 집중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현황 분석과 추진과제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유현희 기자

크라운해태제과
"국악꿈나무를 찾아라"

크라운해태제과는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 연수원에서 '잘한다!! 국악영재들' 공연과 '국악꿈나무 경연대회', '국악실내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크라운해태는 국악의 미래를 이끌 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국악꿈나무 경연대회와 대학생을 위한 국악실내악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해 왔다.

국악영재들 공연에서는 안숙선, 정대석 등 국악계 명인들의 추천을 받은 7개 팀이 무대에 올랐다. 국악꿈나무 경연대회와 국악실내악 페스티벌은 예선을 통과한 150여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국악꿈나무 경연대회에서는 현악부문 정서원(성남미금초교), 관악부문 민경주(국립국악중교), 현악부문 장서현(국립국악고교)이 부문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악실내악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람내래'팀이 금상을 차지했다. 입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크라운-해태제과가 주최하는 각종 국악공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국악의 미래를 이끌 꿈나무 발굴에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시계바늘이 11시 30분을 넘어서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한 곳으로 집중된다. "오늘 점심, 뭐먹지?"
쿡방(Cook+방송)과 셰프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른 2015년이지만 점심까지 직접 요리를 해먹을 수는 없는 일. 이에 메트로신문은 수도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맛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볍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 탐방에 나선다.

지갑 얇은 직장인·주부들 다 모여라

한끼에 5500원… 강남에 이런식당이?

맛있는 메트로 선릉역 백반전문 '사천옥'

13년 지켜온 백반 손맛… 하루 평균 300여명 거쳐
3종류 된장 넣은 된장찌개·갓 구워낸 두부전 인기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만나는 선릉역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만 약 11만명에 달한다. 전국 상권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선릉역 2번 출구에서 직진,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다음 100m 정도 가면 오른쪽 골목길에 가정집을 개조한 식당 '사천옥'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영양사가 차린 가정식백반'이란 플래카드다.

이곳의 점심메뉴는 백반 한 가지다.

삼겹살도 판매하지만 바쁜 점심시간에는 주문이 불가하다. 일단 자리를 잡고 앉으면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인원수에 맞춰 밑반찬이 깔리고 곧이어 갓 지은 따끈한 밥과 보글거리는 된장찌개가 등장한다.

밥과 국, 찌개를 포함해 10여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백반 가격은 놀랍게도 5500원이다.

'사천옥'의 5500원 백반정식.

개업 당시 4000원으로 시작한 백반가격은 지난 7월, 10여 년 가까이 5000원을 고집했는데, 식자재값 상승을 견디지 못해 8월부터 500원 올렸다고 한다.

10여개 반찬 중에서도 대표 선수로 꼽히는 것은 3종류의 된장을 사용한 된장찌개, 달걀물을 입혀 구워낸 따끈한 두부전과 꽁치조림이다. 그 외에 제육볶음, 불고기, 오징어볶음, 닭볶음탕 등도 요일을 바꿔가며 등장한다. 바삭거리는 서해 김도 인기있는 반찬 중 하나다.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과 같은 상차림에 이곳은 넥타이 부대는 물론이고 주부 모임, 종교단체모임 등 다양한 손님들로 365일 북적이며 하루 평균 300명이 넘는 손님이 다녀가고 있다.

1주일에 한번 이상 꼭 이곳을 찾는다는 직장인 A씨는 "맛도 맛이지만 강남에서 5000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밥값이 원래 5000원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500원 올랐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장님이 미안해해서 손님인 내가 더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사천옥은 없어지면 안 될 곳"이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직장인 B씨는 "사천옥이야말로 선릉역 최고의 집밥전문점이다. 강남 도심 한가운데서 편안한 시골집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점심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도 이곳을 꼭 고집한다"고 자주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천옥은 월드컵이 열린 2002년 정년퇴직한 최진수씨(69) 부부가 개업, 1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부는 '한식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즉석에서 조리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철학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키며 손님을 맞고 있다.

손님이 몰리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예약 손님을 받지 않고, 1시 이후에는 단체 예약이 가능하다.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1인 손님도 편안하게 식사가 가능하다. 단, 트레이드마크인 된장찌개는 2인 이상 상차림에만 제공된다. /김미영 객원기자

사진/손진영 기자 son@

직장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 선릉역 2번출구 앞에 있는 백반 전문 '사천옥'.

※ 사천옥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9-33 (tel. 02-539-1075)
※ 찾아가는 길 : 선릉역 2번 출구 직진 후 좌회전, 100미터 직진 후 속옷가게 오른쪽 골목

서울 힐링체험농원 올해 5000여명 찾아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힐링체험농원'에 5000 여명의 시민이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서구 과해동에 조성된 약 2만 1385㎡ 규모의 '힐링체험농원'은 로컬푸드와 힐링의 개념을 접목시킨 서울 최대 규모 농촌이다.

서울시는 '힐링체험농원'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도시에서 체험해볼 수 없던 모내기, 농작물 수확 등 농촌자연생활을 경험하도록 했다(사진). 또 시민이 직접 '경복궁 쌀' '수라 배' 등 서울브랜드 농산품을 재배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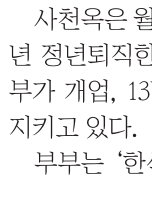
한편 '힐링체험농원'은 매년 5월부터 서울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100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다. 내년 모집은 4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6959-9361. /신원선 기자

서울·강원건보공단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봉사단이 직접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 건이강 봉사단은 지난 27일 강원도 원주 소망주기복지센터에서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고 원주에서 재배한 고랭지 배추와 채소를 구매해 약 3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가족봉사단과 원주성지병원 직원 등 70여명과 함께한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참석해 직접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김장을 하지 못하는 원주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50세대와 '애네아의 집' 등 불우보호시설 3개소에 생활물 품과 함께 전달됐다. /채신화 기자 csh9101@·사진=건보공단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센터 오늘오후 고혈압 건강강좌

이대목동병원 심장혈관센터는 30일 오후 2시~4시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고혈압 건강강좌'를 연다.

'고혈압 관리! 행복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는 혈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관리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편욱범 교수

고혈압 건강강좌는 ▲고혈압은 위험합니다(편욱범 순환기내과 교수) ▲고혈압, 부정맥, 중풍(박준범 순환기내과 교수) ▲노인의 운동과 안전한 스트레칭(한수정 재활의학과 교수) ▲고혈압의 식사관리(강병진 영양사) 총 4가지 강연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좌는 무료로, 참석자에게는 머그컵(선착순 100명)과 고혈압 관리를 위한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문의 : 02-2650-6177, 5308 /신원선 기자

새로 나온 책

은밀하게 나를 사랑한 남자
문학동네/에릭 포토리노 지음

페미나상 수상 작가 에릭 포토리노의 진실하고 내밀한 자전적 에세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자살 이후 벌어지는 일들과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면서도 격정적인 필체로 써내려갔다. 한 남자의 죽음 이후 그 원인을 추적해나가는 과정은 추리소설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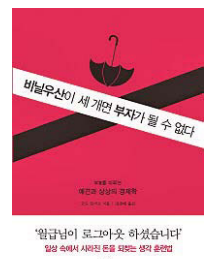
하지만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진솔함에 있다. 책 속의 모든 문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작가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점차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을 형상화해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본연의 문제에 대한 통찰로 사유를 확장시켜나간다.

이 책의 저자 에릭 포토리노는 1991년 첫 장편소설 '로셸' 출간 후 자전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며 섬세한 언어로 사랑과 죽음 등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 위주로 써왔다. '아프리카의 심장' '코르사코프 증후군' '붉은 애무' 등이 있다. 208쪽, 1만 2000원 /신원선 기자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의 힘
평단/애나 김 지음

'감사는 결국 훈련이고 습관이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저자가 16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체험 사례가 수록됐다. '감사파워'의 위대함을 알고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책은 감사일기를 접하게 된 동기부터 감사 사례까지 총 5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의 끝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써볼 수 있는 '감사일기 쓰기' 공간이 마련됐다. 352쪽, 1만4000원.

비닐우산이 세 개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이큰/고도 토키오 지음지음



일상 속에서 사라진 돈을 찾는 생각 훈련법이다. 저자는 책에서 부를 이루는 데는 소비습관보다 예견하고 상상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지 각종 사례를 통해 심리적, 논리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예견력을 기를 수 있는지 그 훈련법을 검증해 소개하고 있다. 224쪽, 1만2800원.

어, 그래?-세상 모든 관계심리학에 대한 가장 친절한 설명서
느낌이 있는 책/왕리 지음

전 세계 100여 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진행했던 심리학 실험을 토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행동, 외모, 연애와 관련된 심리 현상을 풀어냈다. 책은 인간관계의 열쇠는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다양한 심리 문제 중에서도 국제 심리학 간행물 30개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 해결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288쪽, 1만4000원

성장문답
세바시북스/세바시 지음

대한민국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의 5분 인생 상담 영상 '성장문답'에서 시작된 책이다. 대중의 질문을 받고 적절한 대답을 해줄 멘토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형식의 이 모바일 콘텐츠 영상은 입소문만으로 대박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이 책은 그동안 대중이 가장 열광한 40가지 질문과 답을 새롭게 편집해 담았다. 현대인에게 인문학적 성찰과 깨달음을 선사한다. 320쪽, 1만4000원

슬로농부-슬로푸드를 만드는 사람들
디자인하우스/행복이가득한집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슬로푸드 생산자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울릉도,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제주도, 강원 인제 등 전국의 슬로푸드를 만드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솔직담백하게 수록되어 있다. 저자인 행복이가득한집 편집부는 독자가 이 책을 통해 슬로푸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 264쪽, 1만5000원

오늘의 남자-다시 여자가 알아야 할 남자 이야기
창비/김형경 지음

이해할 수 없는 남자때문에 속끓이는 여자를 위해 국내 최고 심리 에세이스트 김형경 작가가 펜을 들었다.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남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진솔한 언어로 조언한다. 김형경표 남녀관계 심리 연구서를 읽다보면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환상은 현실감을 되찾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220쪽, 1만4000원 /신원선

두식아!

테러

Art By 현용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2017년부터 운… 서두르지 말고 만나세요

슈킹 여자 89년 10월 2일 양력 17시 39분
남자 84년 10월 18일 양력 시간 모름

Q 선생님~ 매일 출근길 선생님 코너를 즐겨보는 27살 애독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래 사귀다가 올 1월에 솔로가 된 후 소개도 여러 번 받고 연애도 여러 번 해 봤지만 자꾸 이런저런 이유들이 마음에 안차서 오래 못 갔었어요.

저는 20살 때부터 빨리 결혼 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돈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요)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역시 현실인건지 어렵네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오빠랑 연락하다가 9월부터 사귀게 돼 이제 연애 3개월째 입니다. 아직 내색은 안했지만 저는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는데 궁합이 어떤가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A 인연과 돈은 비례하듯이 돈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돈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물을 거둬들인다 해도 모으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재물을 모으려 해도 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적된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처방을 잠시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는 돈에 국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인연에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니 들어보십시오.

풍수 처방이 있는데 집안 내부 어딘가에 기가 빠져나가는 곳이 없는지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배수구는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며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발코니 창문이 보이는 집은 재산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창문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벽에 금이 가거나 천장의 어느 한곳이 뚫려 있다면 재물이 새나가는 누재택(漏財宅)으로 좋지 않게 여깁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한 환경을 구축하는 비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출입문으로 생기를 모으고 유입된 기가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데 있습니다. 현실에서 돈을 그리 우선하냐 하는 말도 있겠으나 우리가 공기를 마시듯이 젊은 시절 재물을 모으는 것은 좋은 기운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고도 봅니다. '좋은 아내는 항상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깨끗한 부대가 강군(强軍)이다'는 말들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자연스럽게 운이 들어오는데 당분간은 만남에 서두르지 말고 인연을 이어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 결혼의 중년기로 넘어가면 여기저기 돈 쓸 일이 많아지므로 중년 궁합의 핵심은 돈으로 집약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챙기고 여자는 건강하고 환경덕분에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1월 30일 (음 10월 1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면 오해가 생깁니다. 60년생 행동 가짐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72년생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84년생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61년생 안정되고 차분한 운기가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73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85년생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결정하세요.

호랑이 50년생 부업에 도전해 보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62년생 조그만 인연이 많은 날입니다. 74년생 본업을 소홀히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86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입니다.

토끼 51년생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활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63년생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하루입니다. 75년생 애정표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7년생 사람들을 만나러 나아가면 길합니다.

용 52년생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64년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88년생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뱀 53년생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65년생 늦은 귀가는 불길합니다. 77년생 거칠고 바람이 많이 부는 하루입니다. 89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겠습니다.

말 54년생 대인관계에 위기가 옵니다. 66년생 최근에 친해진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78년생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90년생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양 55년생 거짓말은 바로 들통이 납니다. 67년생 끈질긴 노력이 상대를 감동시킬수 있습니다. 79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옵니다. 91년생 회사에서 인정받아 매우 유익한 하루를 보냅니다.

원숭이 56년생 오래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됩니다. 68년생 기운이 없고 힘든 하루를 보냅니다. 80년생 자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하세요. 92년생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관찰하도록 하세요.

닭 57년생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매너를 베푸세요. 69년생 회사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81년생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93년생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날입니다.

개 58년생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70년생 사방에 고통과 어려움이 펼쳐져 있습니다. 82년생 때를 기다리면 좋은 기운이 옵니다. 94년생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이성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돼지 59년생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71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83년생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합니다. 95년생 타인의 눈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세요.

SUDOKU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2	6	4	9	5	3	1	8	7
5	7	8	1	4	6	9	3	2
3	1	9	2	7	8	5	4	6
9	2	1	3	8	7	6	5	4
8	4	3	6	9	5	7	2	1
7	5	6	4	1	2	3	9	8
1	3	7	5	6	9	2	8	4
4	9	2	8	3	1	4	7	6
6	8	5	7	2	4	8	1	9

5	3	8	1	7	2	9	6	4
4	9	6	7	5	3	2	8	1
1	2	7	8	4	9	6	3	5
7	8	1	2	9	6	3	4	5
3	6	9	4	1	8	7	5	2
2	5	4	6	3	7	1	9	8
6	1	2	9	8	4	5	7	3
9	4	5	3	6	1	8	2	7
8	7	3	5	2	4	1	6	9

	4	7			3			
3		5	7					4
	2			6				
	9	6		3			5	7
4	1			8		6	2	
				7			1	
2					1	8		5
			3			4	6	

	2				1			
			7	2				
1		5		4		8		6
	5			9			3	
		9	4		8	7		
	8			5			4	
6		2		8		3		5
				3	6			
			1				6	

2015.
12.4(Fri) ~
12.20(Sun)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평일 8시
토 3시, 6시 30분
일 2시, 5시 30분
월 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바람직한 청소년

2015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 우수재공연 제작 지원 선정작

원작 이오진 각색 이오진 민준호 연출 민준호 작곡·음악감독 정혜진 출연 조풍래 김보강 오인하 정동화 김대현 배두훈 박정원 구도균 류경환 최은석 김지훈 양경원 차용학 정다희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작 (주)이다엔터테인먼트 홍보 (주)이다엔터테인먼트 BELLA MUSE 벨라뮤즈㈜ 예매처 인터파크티켓 1544-1555 공연예술센터 02-3668-0007 문의 02-762-0010

왼쪽부터 배우 고창석, 문진아, 이지훈, 유연석, 배다해, 조재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홍익대학교 대학로아트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프레스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위도 뚫어버린 '벽뚫남'의 매력

〈벽을 뚫는 남자〉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벽을 통과하는 기발한 무대장치
4인 밴드 라이브 연주도 볼거리

지난 24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지난 21일 개막한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를 보러 온 관객들이었다.

'벽을 뚫는 남자'는 프랑스 작가 마르셀 에메의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 '쉘부르의 우산'의 음악을 담당한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작품이다. 1940년대 파리 몽마르트를 배경으로 평범한 우체국 직원 듀티율이 어느 날 벽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2006년 국내 초연 이후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올해는 배우 이지훈과 유연석이 남자 주인공 듀티율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듀티율과 사랑에 빠지는 여인 이사벨 역은 배다해와 문진아가, 관객에게 가장 큰 웃음을 주는 캐릭터 듀블·경찰·변호사·형무소장 역에는 고창석과 조재윤이 더블캐스팅 됐다.

이날 공연에서 주인공 듀티율은 이지훈이 연기했다. "난 그저 보통남자,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노래하는 소심한 우체국 공무원이다. 등을 구부리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듀티율은 어느 날 벽을 통과하는 능력을 갖게 된 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다. 그는 집안에 갇혀서 불행한 날을 보내고 있는 여인 이사벨(배다해)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과감한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다. 작품은 듀티율이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현세대의 부정부패도 함께 꼬집는다. 이를 통해 관객에게 공감과 통쾌함을 선사한다.

배우 이지훈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홍익대학교 대학로아트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프레스콜에서 극 중 하이라이트 한 장면을 연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담은 듀티율과 이사벨의 노래는 서정적이고 잔잔해서 다소 지루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창석이 등장해 큰 웃음을 안겼다. 고창석은 정신과 의사 듀블·변호사·경찰·형무소장 등 1인 4역을 소화했다. 빠르고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 연기하는 모습에 관객은 저절로 환호했다.

무대장치도 볼거리 중 하나였다. 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 빛과 그림자를 이용했다. 벽을 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특수 제작된 '벽'도 준비했다.

아울러 무대 양 옆에서 라이브로 연주되는 음악은 관객의 귀를 즐겁게 한다. 건반·플루트·피콜로·클라리넷·색소폰·실로폰·비브라폰·차임·우드블럭 등 총 20여 악기를 4인의 라이브 밴드가 전부 소화한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는 내년 2월 14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 (문의:02-749-9037) /신원선기자 tree6834@

"애드리브는 대사처럼, 대사는 애드리브처럼"

스타인터뷰

영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정재영**

시종일관 버럭버럭하는 부장이라니. 직장인이라면 기피하고 싶은 상사임에 틀림없다. 영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감독 정기훈)에서 정재영(45)이 연기한 하재관이 바로 그런 부장이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하재관이 마냥 밉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정재영만의 매력이 하재관의 캐릭터에 잘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는 사회 초년생의 애환과 성장을 그린 영화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스포츠신문사의 연예부 수습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도라희(박보영)가 정식기자가 돼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정재영은 그런 도라희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기는 연예부장 하재관 역을 맡았다. 다혈질에 까칠한 성격을 지닌, 누가 봐도 나쁜 상사의 전형이다.

"형사 역할은 많이 해봐서 이제 경찰서 구조까지 다 알 정도예요(웃음). 하지만 기자는 달라요. 많이 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직업이죠. 그런 기자들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인간적이라고 느꼈어요. 하재관 같은 인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학교에도, 군대에도, 사회에도 하재관 같은 인물은 존재하니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정재영은 '내가 살인범이다' '방황하는 칼날' 등 스릴러 장르를 중심으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왔다. 연기의 톤도 다소 묵직했다. 그러나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의 정재영은 다르다. 보다 일상적인 톤으로 힘을 뺀 연기가 눈에 띈다. 오달수, 배성우, 진경 등 생활 연기에 정평이 난 배우들과의 앙상블도 인상적이다. 바로 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연기가 '나쁜 상사' 하재관을 인간적으로 만든다.

다혈질+까칠한 부장으로 변신
무게감 줄이고 일상적인 연기로
재미있는 장면, 의외성 있어야
드라마·남우주연상 바쁜 한 해

정재영 스스로도 이번 영화에서 연기의 재미를 많이 느꼈다. "'웰컴 투 동막골'이나 '실미도'처럼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재미있어요. 여러 배우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보니 현장 자체가 재미있거든요. 배우가 많은 만큼 의외성도 있어요. 의외성이 있어야 재미있는 장면도 나오죠."

애드리브 연기도 많았다. 영화 후반부 도라희에게 밥을 사준 뒤 식당 밖으로 나온 하재관이 외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그렇다. 정재영의 애드리브 연기가 영화의 일상성을 극대화시키는 순간이다. 하지만 정재영이 막무가내로 애드리브 연기를 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이다. "애드리브가 너무 많으면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애드리브는 대사처럼 느끼게 하고 대사는 애드리브처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다가갈 테니까요."

2015년 정재영은 여느 해보다도 바쁘게 달려왔다. 지난 5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의 촬영을 마친 뒤에는 드라마 '어셈블리'로 안방을 찾았다. 첫 드라마 주연작이다. 작품성과 연기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시청률은 아쉬웠다. 정재영은 "드라마 들어가기 전부터 시청률이 많이 나올 소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며 "시청률은 아쉽지만 작품을 좋아해준 분들이 많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기쁜 일도 있었다. 지난 10월 개봉한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와 영평상, 아시아태평양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정재영에게는 "의외의 선물" 같은 상이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재영은 늘 그래왔듯 유쾌한 모습으로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나중에 데스크가 되더라도 하재관처럼은 하지 말라"는 농담으로 끝인사를 전했다. 웃음 속에서 정재영의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롤러코스터 인생사 고백

◆ SBS '힐링캠프-500인'

오후 11시10분

배우 김광규가 택시 기사에서 신스틸러 배우로 거듭나기까지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사를 고백한다.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고시원으로 들어간 사연, 그리고 군 제대 이후 바로 택시기사 생활을 시작한 이야기 등 우여곡절 많았던 삶을 털어놓는다. 그럼에도 "이 바닥에서 10년 버티자"라는 다짐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음을 이야기한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50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5:10 끝과 시작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5:10 오늘 플러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20 응답하라 1997 (재)	06:10 7번방의 선물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힐링의 품격 스페셜			06:50 테이크다운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7:50 집밥 백선생 (재)	08:2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재)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30 JTBC NEWS 아침 &			08:50 주말 N 영화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10 좋은아침		09: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09:40 CSI 시즌7 (재)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00 SBS 뉴스	09:00 최고의 사랑 (재)			10:00 플립
10:55 별별가족	10:40 지구촌 뉴스	09:40 기분 좋은 날	10:30 SBS 생활경제	10:00 히든싱어 4 (재)	11:10 응답하라 1988 (재)	11:40 CSI 마이애미 시즌4 (재)	
11:00 KBS네트워크 특선 촌촌촌	11:00 오 마이 비너스 (재)		11:10 청담동 스캔들				11:50 전국노래자랑
11:55 안녕 우리말 (재)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1:50 SBS 12뉴스				
12:00 KBS 뉴스 12		12:00 MBC 정오뉴스	12:45 잘먹고 잘사는 법	12:05 송곳 (재)		12:40 CSI 마이애미 시즌6 (재)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2:20 통일전망대	식사하셨어요? (재)		13:00 응답하라 1988 (재)		
13: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재)	14:00 KBS 뉴스타임	13:10 창사특집 시사토크	14: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3:40 관상	
14: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14:1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재)	이슈를 말한다 (재)	15:00 3시, 뉴스브리핑		14:50 문제적 남자 (재)		14:00 비포 선라이즈
15:00 2015 코리언 지오그래픽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4:00 키즈 사이언스 5 (재)	16:00 민영방송 공동기획	15:50 4시 사건 반장			
16:00 오늘의 경제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00 MBC 뉴스	물은 생명이다				
16:10 세계인 스페셜	16:00 TV 유치원	15:10 똑?똑! 키즈스쿨	16:30 안녕 자두야		16:20 코미디 빅리그 (재)	16:30 툼스톤(2014)	16:10 깡철이
16:20 취재파일 K (재)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5: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7: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10 5시 정치부 회의			
17:00 KBS 뉴스 5	16:40 동물의 세계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7: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7:20 시사진단	17: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17:00 MBC 이브닝 뉴스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8:00 생방송 투데이	18:30 최고의 사랑 (재)			18:20 나도 영화감독이다 2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20 돌아온 황금복	19:55 JTBC 뉴스룸	19:40 발상전환 롤체인지 - 2판4판 (1회)	18:50 토르 2:다크월드	19:40 콘 에어
19:00 KBS 뉴스 7	19:50 다 잘될 거야	19:55 MBC 뉴스데스크	20:00 SBS 8 뉴스		20:40 명단공개		
19:30 우리말 겨루기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아름다운 당신	20:55 10주년 특집 생활의 달인				
20:25 우리 집 꿀단지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1:30 리얼스토리 눈		21:30 냉장고를 부탁해	21:40 쓸모있는 남자들 (재)	21:10 우리는 형제입니다	
21:00 KBS 뉴스 9		22:00 화려한 유혹	22:00 육룡이 나르샤				22:00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2:00 가요무대	22:00 오 마이 비너스	23:10 창사기념 특집 다큐 아리랑	23:15 힐링캠프 500인	22:50 비정상회담	23:00 풍선껌		
23:40 TV, 책을 보다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10 MBC 뉴스 24	24:35 나이트라인			23:20 강남 1970	
24:20 해외드라마 닥터 후 시즌9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스포츠 특선		24: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24:20 SNL 코리아 시즌6 (재)		24:20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테러에 위협 받는 크리스마스

송병형의 딴생각

며칠전 동생이 페이스북에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을 올렸다. 유치원생인 조카가 아름다운 트리 조명에 취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다. 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어린 조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크리스마스는 동생이나 조카에게 가장 큰 연말축제다. 종교를 넘어 크리스마스는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본고장인 유럽과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년같지 않다고 한다. 11월 13일의 금요일 밤에 벌어진 파리 테러의 영향이다.

크리스마스 최대 축제의 장인 크리스마스 마켓은 테러 위협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거나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사는 예년의 풍경을 찾아볼 수 없고, 화려한 조명 점등식도 취소됐다는 것이다.

최근 독일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주최측과 경찰, 당국 등이 모여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점포 운영자들은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포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파리 등 유럽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려던 사람들도 줄었다고 한다. 파리 테러 이후 지난 20일까지 일주일간 파리 여행 취소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었고, 신규 예약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고 전해진다.

파리 테러가 일어났을 때 유럽 사람들은 테러의 위협에 '겁먹지 말자'라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이도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종교적·문화적 다양성을 배려해 크리스마스의 종교색을 감춰야 한다는 논리다.

영국에서는 영화관이 크리스마스 광고를 두고 종교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영화관이 "종교적 광고는 금지한다"며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광고의 상영을 금지하자 종교계가 "그렇다면 모든 크리스마스 광고를 금지하라"며 반발했다는 이야기다.

스타벅스 역시 연말 특별 종이컵에 크리스마스 무늬를 빼면서 종교인들의 반발을 샀다. 스타벅스 종이컵은 소셜미디어로 논쟁이 번지기도 했다. 이른바 '크리스마스전쟁'이다.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축제인 크리스마스를 빼앗겼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며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종이컵에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논쟁들이야 서구에서나 가능하지 우리사회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처음부터 크리스마스가 모두의 축제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서구와의 교류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축제가 된 것이다. 기독교 신자층이 두꺼워진 것도 역할을 했다. 결국 세계의 조류가 바뀌면 우리사회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언젠가는 우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 또 크리스마스 광고를 두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다만 그런 날이 최대한 천천히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바야흐로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bhsong@metroseoul.co.kr

법치를 말할 자격

기자 수첩

연 미 란 〈산업부〉

이쯤되면 한자 문맹이 의심된다. 법치(法治),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라는 의미다. 해석을 달리해도 법을 기준으로 '관리하다' '통치하다'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적어도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 관리하는 기관을 향해 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희한하다. 종종 정치권이 국민을 향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식의 훈계를 내놓는다. 솔직해져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체가 국민이 맞나.

11·14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여기저기서 법치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야단법석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1일 민중총궐기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등 8개 단체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농민 백남기씨가 중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치권과 공권력이 진상조사와 함께 주범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겐 잘잘못을 가릴 자격이 없다. 이 지점에서 여야, 공권력 모두 떳떳하지 않다. 경찰은 위헌 판결이 난 차벽과 물대포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 역시 밥 먹듯 불법과 탈법을 넘나든다. 지난 13일까지 결정했어야 할 선거구획정은 법정시한을 가뿐히 넘겼다. 총선이 임박하자 지역 정서를 앞세워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 법을 무시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도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누리과정, 경찰의 살수차 구매, 교과서 국정화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30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내달 1일 오전 0시를 기해 정부원안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동부의제에 따라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조에 의한 시한 준수이지, 의원들의 준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탈법이다. 법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정치권에 만연한 셈이다.

법치를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자. 적어도 법치국가 운운하려면 법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actor@

CJ대한통운·한국암웨이 '아름다운 동행 20주년'

"믿음·신뢰로 지켜온 20년… 동반성장의 힘"

CJ대한통운이 한국암웨이와 20년간 동행을 기념한 계약 20주년 기념식을 지난 27일 개최했다.

택배사업 태동기부터 두 회사의 인연은 이어져왔다. CJ대한통운은 한국암웨이와 1995년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 배송을 시작으로 강원, 충청, 제주 등으로 업무 지역을 확대하며 첫 인연을 맺었다. 1997년부터는 전국 지역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비즈니스 센터인 암웨이 프라자 6개소도 운영 중이다.

20년의 긴 인연만큼 양사의 신뢰는 돈독하다. CJ대한통운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암웨이는 두달치 택배비용을 선결제를 결정했다. 또 CJ대한통운의 우수 택배사원 부부를 대상으로 제주도와 경주 부부동반 여행도 지원했다.

CJ대한통운 역시 이 같은 신뢰와 배려에 호응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배송하는 타임택배 서비스, 제주지역에 대한 항공발송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택배차량 100여대에 한국암웨이 제품 브랜드 로고를 달고 운행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국암웨이와 CJ대한통운이 지난 27일 계약 20주년을 맞았다. 이날 열린 2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손관수 CJ대한통운 대표, 박세준 한국암웨이 대표, 양승석 CJ대한통운 부회장, 제임스 박 ABG NORTH ASIA 대표(왼쪽부터)등이 상생의 파트너십을 다짐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로 지켜온 지난 20년의 세월은 산업계 전반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이며 이 같은 아름다운 2인 3각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글로벌 기업인 한국암웨이와의 계약을 수행하면서 택배 서비스 발전의 계기를 얻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 품질 계수화 프로그램(SQI)이다. 서비스 품질을 수치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CJ대한통운은 한국암웨이가 시행중이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무형의 택배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 /유현희 기자

社說

야당의 혼돈 언제 끝나나

야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을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9일 거부했다. 안 전 대표는 대신 문대표와 자신이 참여하는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역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재를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박지원 주승용 등 호남 출신 의원들은 줄기차게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야당은 사공많은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당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뚜렷한 비전이나 경륜을 갖추지 못한 채 알맹이 없는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다. 총선을 비롯한 주요선거에서 거듭 패배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일은 헌정사상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대여협상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386조여원의 예산안도 고작 2000억원 가량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한다. 갖가지 국정현안 가운데서도 야당이 협조할 사안과 따져야 할 사안이 뒤섞인 채 발목잡기만 거듭되고 있다. 노동법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더욱 무기력하다. 최근 광화문에서 과격시위가 벌어진 것도 야당의 무기력에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내분을 겪는 것은 당내 문제이니 국민들은 굳이 관심을 가질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부가 복잡하더라도 야당으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한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보다 명확하게 반대하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여당도 정신 차리고 민심을 보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은 그 어느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 야당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세월만 보낼 바에는 차라리 비전과 경륜을 갖춘 인물들로 전면재구성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이같은 지리멸렬과 혼돈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음을 야당은 깨달아야 한다.

'천연세제' 베이킹소다의 재발견

소비자 119

프라이팬 기름기 제거 효과적
과일·채소 잔류농약 걱정도 싹

베이킹소다가 천연 세제로 주목받고 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세제까지 친환경적인 제품을 고민하는 주부라면 베이킹소다의 효능을 눈여겨보자.

육류요리나 생선구이, 튀김 요리 후 기름기가 잘 제거되지 않아 주방세제를 몇번씩 펌핑해본 경험 한번쯤 있을 것이다. 세제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 꺼름찍하기도 하지만 설겆이 후 세제가 완벽히 제거됐을지 찜찜한 기분까지 남기 일쑤다.

베이킹 소다는 기름기 제거에 효과적이다.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기름때를 제거하거나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주변의 묵은 기름때까지 한번에 제거할 수 있는 천연세제가 바로 베이킹소다다.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씻자니 잔류농약이 걱정되고 세제로 세척하기도 부담스러울 때도 베이킹소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사과나 배, 오렌지 등 겉이 딱딱한 과일들은 베이킹 소다를 직접 뿌린 후 씻어내고 포도나 딸기처럼 무른 과일은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잠깐 담궈두는 것만으로도 잔류농약 걱정을 덜 수 있다.

베이킹소다는 살균효과도 높다. 욕실이나 싱크대 배수구에서 악취가 난다면 베이킹소다를 분사한 후 뜨거운 물을 붓는 것으로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면대와 변기, 타일 청소에도 용이하다. 곰팡이가 심하다면 베이킹소다에 구연산을 더해 뿌린 후 솔로 제거하면 된다.

최근에는 생활용품 기업에서 주방세제부터 청소용 제품까지 베이킹소다를 원료로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의 친환경 니즈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

◇제주특별자치도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BBS불교방송 ▲ 포교문화국 문화사업부장 박호창 ▲ 경영기획실 마케팅부장 안훈 ▲ 부산지방사 교계협력부장 박치민 ▲ 경영기획실 기획홍보부장 겸 뉴미디어 TF팀장 장수연

◇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보호담당관 전병근

◇서울신문 ▲ 재경부장 이연경 ▲ 총무부장 이장훈 ▲ 독자지원부장 김정남 ▲ 공보전략1부장 임종원 ▲ 발송부장 김용덕 ▲ 사업단 부단장 임철재 ▲ 공익사업부장 안창섭 ▲ 사업개발부장 윤상윤 ▷ 제작국 ▲ 부국장 겸 윤전부장 김장옥 ▲ 기술관리부장 전준식 ▲ 시설안전관리국 기획위원 박종덕 ▲ 시설관리부장 권순만 ▲ 미래전략위원 김철홍

◇식품의약품안전처 ▷ 승진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정보관리팀장 황정구 △대구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흥선

부고

▲김홍선(전 단국공고 교장)씨 별세, 김호준(BBS 문화부 기자)·태연씨 부친상 = 29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6호실, 발인 12월 1일 오전 6시, 031-787-1500

▲장상칠씨 별세, 장규호(한국경제신문 혁신전략부장)·규태(SK텔레콤 컨버전스테크부장)·규일(이지팜 과장) 씨 부친상, 김민정(분당 탄천초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 29일,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월 1일 051-464-585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왼쪽부터 넥센 손승락, 삼성 박석민, SK 정우람 선수가 올해 FA시장 대어로 꼽힌다.

손승락·박석민·정우람 새 둥지 몸값은?

프로야구 FA(자유계약선수) 영입 전쟁이 시작됐다.

2016년 FA 권리를 갖춘 선수는 총 22명이다. 그중 11명은 원소속구단 우선협상 마감일인 28일까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그러나 남은 11명은 원소속구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29일부터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과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 다음달 5일까지 협상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달 6일부터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만날 수 있다.

타 구단에서 배출한 FA와 계약하는 팀은 해당 선수의 2015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으면 2015년 연봉의 300%를 지급한다. 각 구단은 타 구단 소속 FA를 최대 3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올해 FA 시장 대어로는 현역 최고 왼손 불펜 정우람(30), 2014년 골든글러브 3루수 박석민(30), 올 시즌 최다 안타왕 유한준(34), 구원왕 출신 손승락(33)이 있다.

프로야구 FA 영입 전쟁

22명 중 11명 소속팀과 협상 결렬
유한준, 4년간 60억에 'KT' 선택
장성호-LG·윤길현-롯데와 계약

2016 FA 투수 최대어인 정우람은 SK 와이번스와 장시간 협상했지만 소득 없이 돌아섰다. SK는 "정우람에게 역대 불펜 FA 최고액을 넘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계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와 만난 박석민, 넥센 히어로즈와 협상한 손승락도 원소속구단이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다.

넥센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유한준은 29일 오후 KT 위즈와 4년 동안 총액 60억원 조건으로 계약했다.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FA도 즐비하다. 특히 10개 구단 중 최다인 6명의 FA를 배출한 SK에서 계약하지 못한 4명이 눈길을 끈다. 정우람을 비롯해 포수 정상호, 우완 중간계투 윤길현, 베테랑 외야수 박재상 등이다.

이들 중 정상호는 타 구단과의 협상이 시작된 29일 LG 트윈스와 옵션 2억원을 포함해 4년 총액 32억원에 계약했다.

또한 윤길현 같은 날 롯데 자이언츠와 4년 총액 38억원에 계약을 했다. 계약금은 18억원이고 연봉은 5억원이다.

올해 롯데에서 부활한 우완 심수창도 새 둥지를 찾는다.

'타격기계' 김현수는 두산 베어스에 "일단 해외 진출을 추진하겠다"며 "해외 진출 추진 상황을 구단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린다.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내야수 오재원은 두산과 협상할 기회를 얻지 못해 퇴소 후 FA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두산 내야수 고영민은 경험을 무기로 새 팀을 찾는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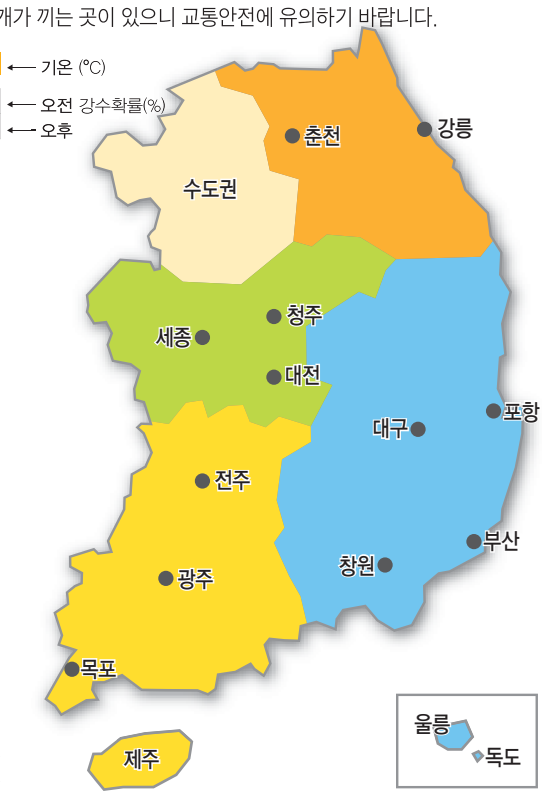
해뜸/07:26 | 해짐/17:14

11월 30일
월요일 (음력 10월 19일)

출근길 안개… 교통안전 유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남부와 강원도 영서,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북 북부내륙에서 비가 조금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역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1/8	60	10
강릉	7/12	20	0
세종	5/8	30	10
대전	5/10	60	10
청주	5/10	60	10
광주	5/12	30	10
전주	6/12	60	10
목포	6/12	20	10
제주	9/15	20	10
대구	3/13	20	10
창원	5/15	20	10
포항	4/13	20	10
부산	7/15	20	10
울릉	6/10	3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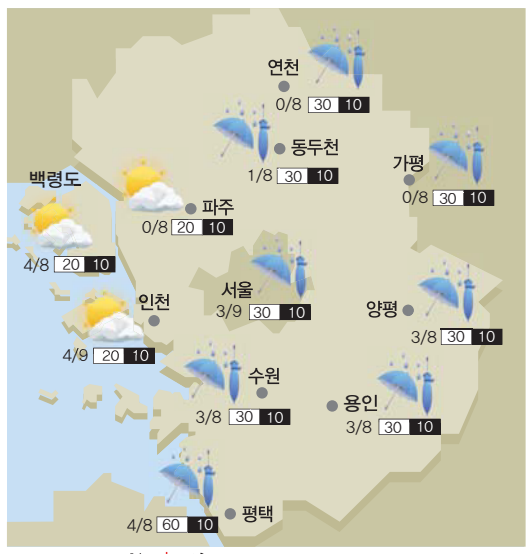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9 ~ 3 ℃

자외선 지수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11:09/23:24	04:44/17:07
인천	07:24/19:52	01:38/13:38
울산	10:06/22:43	03:59/16:12
군산	05:41/18:14	00:34/12:29
목포	04:44/17:29	09:55/22:3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NC '마산 예수' 스튜어트도 잡았다

총액 75만 달러에 재계약 성공
해커·테임즈 등 용병 전원 지켜

NC 다이노스가 29일 외국인 투수 재크 스튜어트(29·사진)와 총액 75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이로써 NC는 '다승왕' 투수 에릭 해커(90만 달러), 'MVP' 타자 에릭 테임즈(150만 달러)에 이어 스튜어트까지 2015년 함께한 외국인 선수들 전원과 재계약에 성공했다.

스튜어트는 부진으로 방출된 찰리 쉬렉을 대신해 지난 6월 NC에 합류했다. 정규시즌 19경기에서 117⅔이닝을 던져 8승 2패 평균자책점 2.68의 빼어난 성적을 거두며 NC 마운드를 지켰다.

포스트시즌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지난달 19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완투승을 거두며 NC에 포스트시즌 첫 홈 승리를 이끌었다.

스튜어트는 긴 곱슬머리와 뛰어난 활약으로 '마산 예수' '창원 예수'라는 애칭을 얻었다.

그는 "멋진 동료와 코치진, 열성적인 창원 팬 덕분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하게 KBO리그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 팀 동료인 테임즈, 해커의 타이틀 수상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부러웠다"며 "내년에 더 좋은 활약을 펼쳐 동료와 함께 시상식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장병호 기자

헨더슨 '어머니의 나라'서 첫 승리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메인이벤트 웰터급서 2-1 판정승
김동현·최두호, 1라운드 TKO 승

28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메인이벤트 경기. 조지 마스비달에게 판정승을 거둔 벤슨 헨더슨(맨 왼쪽)이 어머니, 부인, 딸, 코칭 스태프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벤슨 헨더슨(32·미국)이 '어머니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UFC 대회 메인이벤트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다.

헨더슨은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메인이벤트 웰터급 경기에서 조지 마스비달(31·미국)에 2-1로 판정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지난 2월 웰터급 전향 후 2연승을 달렸다. 격투기 통산 전적은 23승 5패가 됐다.

헨더슨은 전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메인이벤트 경험이 많다. 하지만 이날 승리는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UFC 대회 메인이벤트에서 따낸 승리라 의미가 컸다.

헨더슨은 자신보다 3㎝가 더 큰 마스비달을 상대로 사이드를 돌면서 기습적인 펀치와 변칙공격, 레그킥으로 포인트를 따냈다. 반면 마스비달은 우직하게 밀고 들어오면서 헨더슨을 경기 내내 압박했다.

결국 둘의 승부는 판정으로 갈렸다. 판정 결과 첫 부심은 48-47로 마스비달의 손을 들어줬고, 두 번째 부심은 48-47로 헨더슨의 우세를 선언했다. 세 번째 부심의 판정이 49-47로 헨더슨의 우세로 나오면서 승리가 확정됐다.

헨더슨은 경기 뒤 "주심이 내 손을 들어서 감사하다. 재미있는 경기였고, 나 역시 대결을 즐겼다"며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갖춘 선수와 경기하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UFC 대표 간판선수인 김동현(34)은 도미닉 워터스(26·미국)를 상대로 1라운드 3분 11초 만에 TKO 승을 거뒀다.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24)도 샘 시실리아(29·미국)와의 경기에서 화끈한 타격으로 가볍게 1라운드 1분 30초 만에 TKO 승을 거뒀다.

'사랑이 아빠' 추성훈(40)은 알베르토 미나(33·브라질)와의 웰터급 경기에서 1-2로 아쉽게 판정패를 당했다. 2라운드 막판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추성훈은 3라운드에서 체력이 고갈된 미나를 몰아붙이며 경기를 압도했다. 하지만 1, 2라운드에서 포인트를 쌓은 미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장병호 기자

제이미 바디, EPL 11경기 연속 득점 '신기록'

14라운드 맨유와 홈경기서 선제골
12년 만에 갱신… 시즌 득점도 선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가 28일(현지시간)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전반 24분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이날 제이비 바디는 11경기 연속 득점으로 리그 신기록을 세웠다. /AP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의 공격수 제이미 바디(28)가 11경기 연속 득점으로 리그 신기록을 세웠다.

제이미 바디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전반 24분 선제골을 넣었다.

이날 골로 바디는 8월 29일 본머스와 경기를 시작으로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올렸다. 종전 프리미어리그 연속 경기 득점 기록은 네덜란드 출신 공격수 뤼트 판 니스텔로이가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세운 10경기 연속이었다.

이번 시즌 득점 기록에서도 제이미 바디는 14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바디는 "골을 넣어 기쁘지만 우리도 실점하는 바람에 이기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경기는 양팀 1-1 무승부로 끝났다.

종전 기록 보유자였던 판 니스텔로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잘했다, 바디. 이제 네가 넘버 원이고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며 축하했다.

제이미 바디는 2007년까지 잉글랜드 8부 리그를 전전했다. 2010년 5부 리그를 거쳐 2012년 당시 2부 리그 소속이던 레스터시티로 이적했다. 다음달 6일 기성용이 속한 스완지시티를 상대로 12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장병호 기자

① 유갑규(왼쪽부터), 라오미, 신미경, 신영훈, 이동연, 임태규 등 참여작가들.
②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각자의 휴대폰에 담는 모습.
③ 전시 오픈 기념으로 신영훈 작가가 라이브 드로잉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④ 지난 25일 전시회 개최를 맞아 기념사를 하는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대표. /오세성 기자

한복 입은 카타리나·아리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展

내달 7일까지 종로 한 전시관서
한국미술 대표하는 작가들 뭉쳐
게임 배경·챔피언 등 모델 삼아
십장생도·초상화 한국화로 승화

라이엇 게임즈가 내달 7일까지 서울 종로 가나인 사아트센터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전(展)'을 열고 있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측은 이번 전시가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에 대해 보다 풍성한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대표는 "오래전부터 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길 바랐다"며 이번 전시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롤 챔피언들은 자신만만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곧 전장으로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기에 그 내면은 고민과 긴장의 연속일 것"이라며 "이번 작품들은 굽이치는 폭포, 깎아지른 절벽 등 풍경을 이용해 인물의 외면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표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라오미, 신미경, 신영훈, 유갑규, 이동연, 임태규 작가가 참여해 게임 내의 배경과 챔피언을 십장생도, 정물화, 초상화 등 상상력이 가득 담긴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현대적 콘텐츠인 게임과 전통 화풍이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이룬 이번 전시회는 롤 플레이어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아이오니아'의 세 챔피언 '야스오', '리 신', '마스터 이'를 표현한 작품 '세한삼우'를 선보인 임태규 작가는 "작가들은 보통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작업한다"며 "동양화와 게임, 두 요소를 컬래버레이션하라는 숙제를 받고 스토리를 만드느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번 작품은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큰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게임 속 대표적인 여자 캐릭터 '아리', '소나', '카타리나'를 '호접지몽 미인도'로 그려낸 이동연 작가는 "그리려는 대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평소 게임을 즐기던 아들이 도움을 줬다"며 "아들과 보다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제 게임도 즐기게 돼 아들에게 잔소리도 못하게 됐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미국 게임인 롤을 한국화와 접목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승현 대표는 "롤은 미국 게임이지만 이제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며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30억원이 넘는 기금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 소장품인 조선시대 불화 '석가삼존도'의 반환 비용을 전액 지불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붓펜 드로잉', '스카프 드로잉', '프로게이머 초청 수묵 드로잉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전시회장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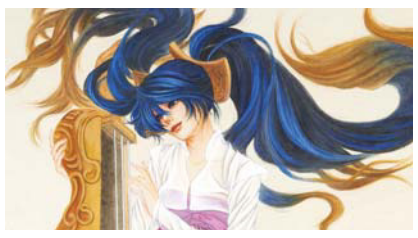
내달 7일까지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展'에 전시된 작품들. 왼쪽부터 차례로 '빙폭 우뚝서다' 유갑규작. '단소정한 룰루와 해태' 신미경작. '청순 미인도' 임동연작. '세한삼우 맹동' 임태규작. /라이엇 게임즈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52호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라이프]
'한국美'에 푹 빠진 LOL
19

연재만화

14

롯데몰 vs AK '복합몰 수원전쟁'

롯데몰, 마트내세워 30·40 공략
경기남부 쇼핑몰 중 최대방문객

AK, 13년 공들여 20·30대 몰려
리뉴얼로 특화매장 강화도 주효

수원역, 롯데몰과 AK플라자 위치.

수원역 롯데몰 내부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연간 지하철 탑승객 1300만명, 하루 평균 유동인구 45만명에 달하는 수원역을 두고 AK플라자와 롯데몰의 승부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수원역은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로 탑승인구가 많다. 그만큼 상권 1인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몰과 AK플라자가 이달과 다음달 나란히 수원 복합쇼핑몰 개장 1주년을 맞이한다. 수원대전 1주년을 맞이한 양사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풍부한 유동인구를 잡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몰은 지난달 27일, AK플라자 수원점은 내달 1주년을 맞는다.

◆면적은 롯데·입점브랜드 수는 AK가 압도

규모와 입점브랜드에서 양사는 하나씩 우위를 나눠가졌다. 연면적은 롯데몰이 23만4000㎡로 AK플라자보다 4배이상 크다. AK플라자는 백화점으로 시작해 13년간 수원역사를 지닌 터줏대감답게 1150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백화점, 외식브랜드를 합쳐 680개를 입점시킨 롯데몰을 압도했다.

롯데몰이 들어서자 13년간 수원시장에 공을 들여온 AK플라자도 롯데몰 오픈 후인 지난해 12월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단행했다. 수원 쇼핑 1번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맞불을 놓은 것. AK플라자는 지난해 12월 복합쇼핑몰 'AK&'과 앰배서더 호텔을 완공하고 AK플라자 수원점과 연결시켜 'AK타운'을 조성했다.

◆롯데는 대형마트, AK는 접근성 강점

두 복합쇼핑몰 모두 극장과 패션·외식브랜드를 고루 입점시켰다. 유사한 콘텐츠만으로 수원대전의 승자에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한 롯데는 AK플라자가 운영하지 않는 브랜드들에 주목했다. 백화점과 외식 입점 브랜드 수가 적은 대신 대형마트(롯데마트), 가전양판점(하이마트)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주부층 공략에 나섰다.

1년 동안 방문 인구만 살펴보면 이같은 전략은 주효했다. 경기남부 최대 복합쇼핑몰인 롯데에는 지난 1년간 2485만명이 다녀갔다. 경기도민이 1200만명임을 감안할 때 모든 경기도민이 2번 이상 다녀간 꼴이다.

AK는 오랜 전통과 편리한 동선이 자랑이다. 13년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AK플라자는 수원시민에게는 '쇼핑몰'의 대명사로 불린다. 롯데의 공세에도 지난해 매출 5200억원으로 매출 1위 수성에 성공했다. 수원역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동선면에서도 롯데몰보다 유리하다.

주요 타깃층에도 차이가 있다. AK플라자는 20~30대, 롯데몰은 30~40대 고객이 주를 이룬다. AK플라자가 새로 개점한 AK&에 키덜트족을 겨냥한 잡화 액세서리, 멀티슈즈샵 등을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롯데몰이 주부와 가족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가전양판점을 입점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